

‘건강도시운동’ (Healthy Cities Movement)에 대한 공공신학적 성찰

노영상 숭실사이버대학교 이사장¹⁾

1. 교회의 운동으로서의 건강도시운동에 대한 검토

1) 건강도시운동(Healthy Cities Movement)의 시발²⁾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전반에 이르는 사회적 변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산업화와 도시화라 할 수 있다. 산업화된 공장들이 도시에 들어섬에 따라, 농촌인구의 도시유입으로 도시 인구의 팽창이 수반되었으며, 이에 거대 도시들이 출현하였다. 작금의 통계는 세계 60억 인구의 거의 절반이 도시에 거주하는 것으로 말하고 있다. 또한 30년 후 세계 인구는 80억에 이를 것이며, 그 중 60억 명 정도가 도시거주자가 될 것이라 예측된다.³⁾

이 같은 도시화는 우리의 삶의 질과 건강의 증진 및 생활의 편리성을 가져오기도 하였지만, 그에 따른 많은 폐해도 있었음을 우리들은 잘 알고 있다. 음식의 안전 문제, 주거 문제, 고용, 수질 및 공기의 오염에 따른 환경 문제, 미래 세대의 건강 문제, 범죄와 폭력과 성 밀매 증가, 약의 남용, 국가적 재앙 및 인재에 대한 취약성, 전염병 확산의 용이성, 사회적 불안정성, 도시 빈곤층의 양산, 출산율의 감소, 스트레스의 증가에 따른 정신적 건강의 문제, 쓰레기 처리의 문제 등이 그것들이다.⁴⁾

이와 같은 급속한 도시화 현상에 주목하면서 1980년 ‘인구와 도시 미래에 관한 로마 선언’(United Nations Fund for Population Activities, 1980)은 “앞으로 20년 안에 세계는 도시화 과정의 결과로서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생활에서 지금까지 어떤 변화보다도 더 근본적인

1) 전 호남신학대학교 총장,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장, 현 숭실사이버대학교 이사장, 총회한국교회연구원장

2) 본 글은 이전 『마을목회 매뉴얼』(2018), 제8장에 게재한 글을 재편집한 것이다.

3) Takehito Takano, ed., *Healthy Cities and Urban Policy Research* (London: Spon Press, 2003), 1.

4) Takehito Takano, ed., *Healthy Cities and Urban Policy Research*, 2-3.

변화를 겪게 될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도시화의 진전은 대중소비와 같은 현대 문명의 혜택을 확대한다는 긍정적 의미도 있지만, 도시 성장이 사회개발과 경제 문화적 진보의 원인이 되기보다는, 도시가 무질서하고 불균형적이며 통제 불가능한 방식으로 성장하여, 도시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비판도 높다. 이런 도시화 때문에 여러 건강 및 환경문제들이 생겨났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⁵⁾

19세기 산업혁명과 더불어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인간과 공장의 쓰레기들에 의해 위생문제가 제기되었으며, 환경이 오염되게 되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교통수단의 발달과 에너지 체계의 변환은 환경오염의 결과를 가중시켰다. 이에 건강의 문제에 생활환경의 문제가 중요하게 고려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또한 이 같은 환경오염의 문제는 사회체계와 깊이 연관된 것으로, 환경문제와 함께 사회문제는 공중보건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1840년대에, 비르코우(Rudolf Virchow)는 “의학은 사회과학으로, 정치학은 의학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말하기도 하였다.⁶⁾ 이제 공중보건의 사회생태적인(socio-ecological) 전망에서 접근되게 된 것이다. 건강에 대한 기존의 생명의료적인(biomedical) 입장과 함께 사회생태적인 이해가 병립하게 되었던 것이다.⁷⁾

건강도시운동은 이 같은 도시의 포괄적인 문제를 모두가 포착하기 쉬운 건강이란 개념을 중심으로 놓고 대처하려 한다. 도시와 도시인의 건강은 보건의료 상의 건강뿐 아니라, 제반 영역에서의 건강을 포함하는 통합적 접근에 의해 증진될 수 있는 것으로, 정부, 지자체와 기업, 그리고 개인 및 지역공동체의 원활한 협력을 통해 개선되어질 수 있는바, 통전적인 구조 속에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건강도시운동은 건강을 결정하는 사회적 결정요인들을 도시의 차원에서 접근해보자는 취지에서 출발하였다. 따라서 건강도시를 위한 운동들은 도시 수준에서 수행되었을 때 가장 효과적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⁸⁾

1980년대부터 세계보건기구(WHO)에 의해 주도되어 온 운동인 ‘건강도시’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⁹⁾ “건강도시란 그 도시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을 지속적으로 창조하고 개선하며,

5) <http://www.health700.or.kr/board/files/healthy.hwp> “WHO 서태평양지역 건강도시연합사무국 건강도시과정 단기해외연수 귀국보고서”에서 인용

6) E. Ackernecht, *Rudolf Virchow* (New York: Ardo Press, 1981). John K. Davies and Michael P. Kelly, eds., *Healthy Cities: Research and Practice* (London: Routledge, 2002), 2에서 재인용.

7) John K. Davies and Michael P. Kelly, “Healthy Cities: Research and Practice,” John K. Davies and Michael P. Kelly, eds., *Healthy Cities: Research and Practice* (London: Routledge, 2002), 1-3.

8) 그러나 ‘건강마을’과 같은 보다 소규모의 운동도 가능할 것이라 생각된다.

9) <http://healthycity.seoul.go.kr/city/hc/hc03.jsp>

삶의 모든 기능들이 잘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그 도시의 최상의 잠재성을 개발함에 있어 사람들로 하여금 상호 협력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지역사회의 자원을 확대해나가는 도시를 말한다.”¹⁰⁾ 이 정의에서와 같이 건강도시운동은 의료적 측면과 함께 사회적 환경문제를 중시하는 입장으로, 건강도시운동에 있어서의 건강이란 육체적 건강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정신적이고, 사회적이며, 자연적인 환경을 그 정의 속에 내포하는 것이다.

이 같은 세계보건기구의 건강도시운동은 우리나라에도 많이 보급되어 2010년까지 우리나라 광역자치단체(16)와 기초자치단체(230)들 중 58개 지자체들이 건강도시연맹에 가입되었는바 이후로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서 교회들도 이 운동의 특징들에 대해 잘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로는 한국의 100여 개의 지자체가 이 건강도시운동에 참여하고 있다.

2) 건강에 대한 정의

이 같은 WHO의 ‘건강도시’에 대한 정의는 ‘건강’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와 연관되어 있다. 세계보건기구는 건강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건강은 육체적(physical), 정신적(mental), 사회적(social) 복리(well-being)의 온전한 상태로 단지 질병이 없거나 또는 허약(infirmity)한 상태에 있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¹¹⁾ 1986년의 건강도시 운동의 주요한 헌장 가운데 하나인, ‘건강증진을 위한 오타와 헌장’(The Ottawa Charter for Health Promotion)은 건강증진이란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¹²⁾

“건강증진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건강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며 개선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과정이다. 완전한 육체적이며 정신적이고 사회적인 복리에 이르기 위해, 개인이나 집단은 그들의 열망을 확인하고 실현할 수 있어야 하며, 요구들을 만족시키고 환경을 변화시키며

10) 헨콕(Trevor Hancock)은 건강도시에 대한 연구의 주요한 특징들 다음의 12가지로 설명하였다: 질병치료 지향적 이기보다 건강 지향적(salutogenically oriented)이고 예방적임, 객관적인 동시에 주관적,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인 복리와 적합함의 추구, 통전적(holistic), 간학문적, 사회적인 배려와 인식, 결과와 동시 과정도 중시, 역량을 강화하고 복돋음, 정책 상관적, 해석적, 행동 지향적, 지역사회 통제적(Trevor Hancock, “The Healthy City from Concept to Application: Implication for Research,” John K. Davies and Michael P. Kelly, eds., *Healthy Cities: Research and Practice*, 24.).

11) John B. Wong, *Christian Wholism: Theological and Ethical Implications in the Postmodern World* (New York: University Press of America, 2002), 110.

12) <http://www.who.int/healthpromotion/conferences/previous/ottawa/en/index.html>의 헌장 앞부분의 ‘건강증진’(health promotion)에 대한 설명에서.

그것에 맞설 수 있어야만 한다. 그러므로 건강은 삶의 목표라기보다는 매일의 삶을 위한 자원으로 생각된다. 건강은 육체적인 능력뿐 아니라, 사회적이며 개인적인 자원들을 강조하는 보다 포괄적인 개념이다. 그러므로 건강증진은 건강부문에 대한 책임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복리를 향한 건강한 삶의 스타일을 넘어서는 것이다.”

이와 같이 건강도시 운동이 말하는 건강에 대한 개념은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좁은 건강에 대한 개념들을 넘어선다. 그것은 전인적이며 통전적인 건강을 추구하는 것이다. 전인적 건강을 우리는 ‘WHOLENESS’(온전함)라는 단어의 앞머리 글자를 따서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도 있다.¹³⁾

W—**Water and Weight Control**: 좋은 물의 섭취와 사용, 건전한 식습관 운동 등을 통한 몸무게 관리가 건강에 필수이다.

H—**Hope, Humor and Hearty Laughs**: 기독교 신앙에 기초한 희망, 웃음은 양약이 된다. 인간은 언제나 긴장하며 살 수 없는 것이다.

O—**Oxygen**: 맑은 공기가 중요하다.

L—**Love**: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

E—**Exercise, Enthusiasm(en theos, God within us), Endless Forbearance**(끊임없는 자제): 운동과 자제가 중요하다.

N—**Nutrition**(영양), **Rest**(휴식), **Relaxation, Recreation**: 채소, 과일, 섬유질이 많은 음식 섭취 중요

E—**Effort**(노력): 좋은 건강습관을 위한 노력이 필요

S—**Search for a Balance**(균형을 찾는 것):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과 자기의지 사이의 균형, 재정적 안전함과 자선 사이의 균형, 자기희생과 자기양육 사이의 균형, 관계적이며 사회적 요구와 반성적 자기성찰 사이의 균형, 영적 관심과 육체적 필요성 사이의 균형 등을 말한다. 이런 균형은 이원론적 사고를 지양한다.

S—**Spirituality**(영성): 영성을 통한 육체적, 정서적, 지성적, 정신적, 사회적, 심리적 치유

위에서 우리는 건강의 개념이 포괄적이며 통전적인 것임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러한 건강과 치유의 통전성은 질병의 원인들을 분석하여 볼 때에도 알 수 있다. 질병의 원인들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바, 조상과의 관계에서의 유전적인 원인, 자신의 잘못된 생행양식 곧 잘못된 식생활,

13) John B. Wong, *Christian Wholism*, 110–112.

과로와 무절제, 운동부족, 열악한 주변과 사회적 환경, 잘못된 인간관계에서 오는 정신적인 스트레스, 적절하지 못한 노동 등 상당히 다방면의 원인들이 질병의 원인이 된다. 질병은 우리의 육적인 부분과만 상관이된 것이 아니며, 영적인 문제 및, 이웃과의 사회적 문제, 자연과 환경에서의 문제, 자기 자신의 자아 및 유전적 원인들이 포괄하는 폭넓은 관계들의 문제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3) 건강도시운동의 평가지표에 대한 평가

건강도시운동을 가장 신속히 파악할 수 있는 길은 그 운동의 평가지표(indicators)를 파악하는 것이다. 필자는 이에 건강도시의 평가 지표들에 대해 설명하는 여러 책들을 종합하여, 평가지표의 내용을 아래에 정리하였다. 물론 세속 건강도시운동에선 영적 건강 등과 같은 마음 건강의 문제에 대해서는 소홀히 한다. 하지만 기독교적인 건강도시운동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정신적이며 영적인 문제가 중요할 것 같아 우선하여 아래에 열거하였다.

필자는 아래와 같은 지표들이 지역공동체를 위한 운동들에 있어서도 중요할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 이에 우리에게 지역공동체의 행복도를 정하는 지표들이 요구되는바, 그런 지표들을 만들 때 건강도시운동의 지표들이 유용할 것이라 생각한다.

[건강도시의 지표들의 종합]¹⁴⁾

기본 구성 요소		세부 지표들	비고
(1) 마음건강 15)	영적 건강	종교기관(교회)의 활성화 정도, 시민들의 영성형성 정도, 종교인구 분포, 시민들의 종교에 대한 참여 정도, 종교서적의 판매 비율	하나님과의 관계
	정신건강	정신병 치료와 재활, 알코올 중독의 치료와 재활, 퇴폐와 향락문화, 시민들의 행복도 지수, 사회적 스트레스 분석, 건강한 국민정서	자아와의 관계
	도덕적 건강	건강한 가치관 형성, 시민들의 정직성 지수, 정부의 부패성 지수, 기업들의 투명성과 윤리성, 낙태율, 타민족에 대한 기본적 태도, 범죄율과 범죄의 흉악성	
(2) 육체건강	인구통계학적 자료	연령과 성별 분포, 출생률, 임신을, 연령 대 별 사망률, 야간의 인구밀도, 야간 인구의 성비, 주간 인구밀도, 인구증가율, 인구 중 65세 이상의 비율(고령화 정도), 1인 가정의 비율	자신의 몸 건강의 문제

14) Keiko Nakamura, "Indicators for Healthy Cities: Tools for Evidence-based Urban Policy Formation," Takehito Takano, ed., *Healthy Cities and Urban Policy Research*, 78-89엔 지표들에 대한 상세한 설명들이 있다.

	건강한 삶의 스타일 및 역학조사	질병율, 상해와 사고, 범죄, 장애인 분포, 자살률, 직업상의 상해, 예방 접종률, 영양, 금연, 운동, 암 진단율, 술 담배의 소비량, 술 담배에 대한 청소년들의 접근 용이도, 한 사람이 일주일에 운동하는 시간, 규칙적인 식생활, 레저 시간	
	건강서비스의 재정위 (reorienting)	10만 명당 의사 수, 10만 명당 병원 수 및 병원의 침상 수, 병원의 건강검진에 참여하는 비율, 인구 10만 명당 앰블런스 수, 의료시설에서 500m 이내에 거주하는 거주자의 비율, 의료 보험률, 응급서비스와의 지리적 거리, 외국어로 소통 가능한 의료서비스 상황, 건강교육 정도, 호스피스 운동의 활성화와 자원자의 상황, 시민건강을 위한 정부의 예산, 질병예방과 통제, 음식물 위생	
(3) 주거환경 건강	주거환경 건강	주거시설 중 소유주가 거주하는 비율, 1인당 거주면적, 기준 이하의 주거시설 비율, 6m 이상 도로의 50m 이내에 주거시설의 비율, 재래식 변기가 설치된 주거시설의 비율, 주거 공간의 질, 집 없는 사람의 비율, 노숙자 수, 특별한 집단을 위한 주거 공간 예비, 5시간 이상 햇빛이 들어오는 집의 비율, 가구 당 평균 면적	집의 문제
	공원과 스포츠 시설	인구 10만 명당 헬스장, 축구장(잔디구장), 야구장, 테니스 코트, 탁구장, 볼링장, 수영장, 골프장, 생활체육장, 게이트볼 구장, 육상트랙, 공원, 동물원, 어린이 놀이터, 놀이공원, 수상스포츠 공간 등의 숫자에 대한 조사, 1인당 도시공원의 면적	
	지리적 환경 건강	기후, 강수량, 지형학, 토양의 건강, 하천의 분포, 연간 기온 분포, 사막화 상황, 동물과 식물의 종의 다양함	
	기본 도시 기획 및 인프라 구조	도시의 지리적 위치, 도시구성에 대한 적합성, 도시 전체의 건물 배치, 전체 토지 중 도로가 차지하는 비율, 5.5m 이하의 도로비율, 녹지공간의 배치, 보도 및 산책로의 충분성과 쾌적성, 차량 대비 도로면적의 적절성, 도로 1km 당 자동차의 수, 인구 10만 명당 우체국의 수, 전기가 들어가는 주택의 비율, 상수도가 들어가는 주택의 비율, 도로에서 500m 이내의 주택의 비율	
(4) 생태건강	기본적 자연환경 건강	환경의 질, 공기 청정도, 수질 오염도, 소음의 정도, 악취의 정도, 전자기파, 토양의 건강함, 앞의 것들에 대한 도시가 마련한 기준의 유무, 경관, 녹지와 공원 비율	자연과의 관계
	쓰레기 및 하수처리의 건강성	쓰레기 관리, 하수처리의 유용성, 해충과 설치류의 통제, 고형 쓰레기 수집의 범위, 재활용 정도, 1인 당 하루 쓰레기 무게,	
	친환경에 대한 노력	금연 문제와 연관된 불만의 정도, 외부 소음과 연관된 불만의 수, 토지 중 공원이 차지하는 비율, 1인당 1일 쓰레기 무게, 녹지면적, 생태공원, 경관개선, 친수공간정비, 자원절약과 자원재활용, 수질 및 대기질 개선, 환경단체 지원, 친환경 프로그램의 운영, 생태마을 조성, 각종 공해에 대한 지역 행정부서 차원의 규제 입법, 환경감시 구조의 실효성	
	교통 환경 건강	자전거 이용 실적, 자전거 도로, 보행환경 개선 실적, 대중교통에 대한 정책(대중교통의 정도와 범위), 교통안전 투자실적 및 교통사고율 감소, 교통위반 정도	교통문제
(5) 사회건강	가정환경 건강	이혼율, 적령기 인구의 결혼율, 아동보호, 가족구조 조사, 초산여성의 평균연령, 가정폭력 신고 건수	어울려 사는 주변 사람들과

경계와 산업 환경 건강	1인당 소득, 1 가구 당 소득, 저축률, 1인당 주민세, 건강에 대한 경제의 영향력에 대한 평가(주요 산업과 기업, 경제의 건강함, 발전의 수준), 도매와 소매의 비율, 빈곤층을 줄임, 직업들의 창출		
복지환경 건강	전체 가구 수 중 복지혜택 수혜자 가구 비율, 전체 복지 혜택비 중 의료혜택비가 차지하는 비율, 사회복지 시설들의 분포와 활성화 정도, 사회복지 비용 향상도, 사회복지 체계에 대한 평가		
노동환경 건강	실업률, 전체 노동인구 중 3차 산업 종사자들의 비율, 전체 노동인구 중 관리자나 사무자의 비율, 전체 노동인구 중 고용인의 비율, 1000명 당 각 공공시설(학교, 병원, 회사, 호텔, 가게 등)의 수, 전체 노동인구의 성장률, 전체 회사 중 고용인원인 4명 미만인 소규모 회사의 수, 빈곤의 수준, 장애인 취업률		
교육 및 역량강화	건강교육과 환경교육과 식생활 교육 등의 강화, 학교급식의 충실성, 문맹률, 고등교육 혜택자 비율, 대학의 수준, 평생교육 제도의 활성화, 장학제도, 초등학교 당 학생수, 중학교 당 학생수, 고등학교 당 학생수, 중학교 졸업생들의 고용비율, 고등학교 졸업생들의 고용비율, 연령에 따른 교육수준, 50세 이하의 교육수준에 따른 성비, 10만 명 당 도서관의 수, 시민들의 도서관 이용률, 지역 학교들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의 학교 및 교육자에 대한 만족도, 시민들의 독서량	이루는 사회적 환경의 문제	
문화환경 건강	인구 10만 명당 유형별 식당 및 레스토랑의 수, 인구 10만 명당 커피 전문점의 수, 인구 10만 명당 유형별 박물관 및 전시장의 수, 인구 10만 명당 백화점 및 기타 쇼핑 장소들의 수, 인구 10만 명당 영화관 극장 오페라 하우스, 인터넷 사용 현황, 인구 10만 명당 자동차의 대수, 각종 박물관 등의 공연관의 수, 위의 시설들의 질적 관리 문제, 지역문화의 비전과 정책, 지역문화 시설의 확충 및 이용 실적, 지역문화 프로그램의 육성, 문화 및 역사 유적지의 수와 그에 대한 관리		
평화의 권리 ¹⁶⁾	평화는 건강의 근본적 전제이다. 평화의 획득이 없이 도시 공동체의 진정된 건강의 상태를 유지할 수 없다. 핵전쟁으로부터의 위협, 국제적인 전쟁과 국지적 분쟁 등. 그리고 인종적이며 종교적인 차이에서 오는 전쟁의 위협 등을 막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군비축소에의 노력, 각종 무기들의 확산을 금지하는 노력, 소형무기 확산에 대한 통제 등 우리는 다양한 평화에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6) 가버넌스 건강	토대가 되는 기본행정의 건강성	내무 외무 국방 외교 등을 포함하는 정부의 기본 되는 행정능력과 행정 원활성, 행정정보들의 접근 용이성, 도시계획과 지역체계의 서술, 의사소통과 정보통신 기술의 가용성, 행정정보에 대한 공개 정도, 공중매체의 이용, 재난구조체계, 화재 위험이 있는 목재 등으로 지어진 주택의 비율, 기타 위험지구나 시설들에 대한 체크	
	지역행정의 건강함	도시재정 자립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운영 실적, 고용 자족률 향상도, 규제완화 및 민간위탁 실적, 자연재해 예방실적, 도시안전을 위한 대책, 주택보급률 및 주택개량 지원 실적, 생활환경 개선실적, 장기비전 수립 실적과 부서와 지역과 지역사회와 지역 행정부서들의 관리 구조에 대한 기술, 현존하는 부서간의 협력 체계의 효율성에 대한 기술과 평가, 병원들과 지역사회 보건시설(모자보건, 장애인, 노령자 보호)들과 학교들과 커뮤니티 센터들과 스포츠 시설들과 환경 건강	국가와의 관계

		감시 시스템 등의 유용성에 대한 기술, 건강도시 프로젝트의 실시 유무
	주민참여도	주민정보 공개, 자원봉사 참여 실적, 전문가 참여 실적, 주민의견수렴 실적, 지자체의 비전 및 정책 설명, 주민창안 유도, 주민참여위원회의 구성, 주민협력 공익사업 추진 실적, NGO나 NPO들의 활동상황, 도시문제에 참여하는 여성들의 비율

한 지역을 행복한 곳으로 만드는 일을 평가하는 결정적인 지표들이 있다. 우리는 그런 지표들을 위의 지표들을 통해 가능해보게 된다. 한 마을의 행복지수를 정하는 데에 있어 결정적 지표들은 다음의 것들로 예상된다. 그 마을의 자살률, 이혼율, 강력범죄의 빈도, 교통사고 사망률, 자기주택 보유율, 실업률, 고령자의 분포와 출생률, 공기의 질 및 수질 오염도, 그 지역의 1인당 소득액, 대학진학률, 종교인 분포(기독교인 비율), 시민 1인이 차지하는 공원의 면적, 초중고 학생들의 행복지수, 낙태율, 전국에서 학업성취도 위치(백분율), 지자체의 민주화 정도, 상습침수 지역 등의 위험지대의 분포, 구청이나 면사무소의 마을 만들기 사업 실행률 등이 될 것이다. 이런 전체적인 윤곽이 있어야 마을목회의 방향을 진단할 수 있으며, 교회가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여야 마을에 가장 도움이 될지를 가능해 볼 수 있게 된다.

이런 지표를 고찰하는 것을 통해 우리는 지역공동체의 행복도를 점수화할 수 있는데, 그런 노력들이 모아지만 한국의 관 행정과 정치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어느 지방자치기관들이 일을 잘 했고 어느 기관들이 부족하였는지를 평가하는 잣대를 마련하다는 것은 한국정치를 선진화하고 과학화하는 길이 될 것이다.

필자는 아래에서 행복한 도시나 마을을 평가하는 지표들을 정리해보았다. 100점 만점으로 하여 대충 아래의 지표들을 살펴보면 그 마을의 행복도가 어느 수준인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아래의 배점들을 기준으로 5단계로 나누어 점수를 주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바, 그 기준을 정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행복하고 건강하며 안전한 지역공동체의 평가지표]

번호	평 가지 표	배점	설 명
1	자살률	10	현재 우리나라는 고령인구의 자살이 많은 편이다.

15) '마음건강'의 지표는 일반 건강도시운동에서 언급되지 않지만, 필자는 기독교의 건강도시운동에선 필수적인 것으로 포함시켰다.

16) WHO, "City Planning for Health and Sustainable Development" (1997), 27.

2	이혼율	6	이혼율은 가정의 행복도를 재는 중요한 지표이다. 이혼을 하면 많은 결혼 자녀들이 생긴다.
3	실업률	7	실업은 가정의 행복에 가장 큰 장애 중 하나이다.
4	출생률	4	아이를 마음 놓고 낳지 못하는 마을은 행복하지 못한 마을이다.
5	지역의 1인당 소득액	8	1인당 소득액은 그 마을의 경제활동을 재는 주요 지표이다.
6	교통사고 건수(사망자 수)	3	지역의 안전도에 있어 교통사고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7	전국에서의 초중고 학업성취도 백분율	4	행복한 마을이 되려면 행복한 학교가 있어야 한다.
8	강력범죄 건수/ 인구 1000명당	4	살인, 강간, 유괴, 방화, 강도 등의 강력범죄를 말한다.
9	자기주택 보유율	3	자기주택, 전세, 사글세 비율
10	지역의 행복지수(자신들이 생각하는), 초중고 학생들의 행복지수	4	행복지수에 대한 여러 기관들의 평가가 있다.
11	관청의 마을 만들기 예산 %/ 주민 위탁 실적	6	전체 재정에 대한 %
12	종교인구(기독교인 %)	5	기독교인의 수가 몇 %인지 정확한 통계가 필요할 것이다. 예배에 참석하는 정도도 조사될 필요가 있다.
13	수질 및 대기 오염도	5	수돗물 오염도, 대기 오염도, 오존 지수, 미세먼지 오염도 등의 측정이 중요하다.
14	생활보호자 %	4	극빈층의 %
15	시민 1인이 차지하는 녹지 및 공원 면적	3	녹지 면적과 문화시설 면적이 시민들의 행복에 중요하다.
16	가정폭력 신고 건수	4	가정폭력에 대한 강한 제제가 필요할 것이다.
17	술집 등의 퇴폐업소 수/ 인구 1,000명당	3	향락 업소가 많을수록 안 좋은 동네다.
18	관의 사회복지 지원 수준, 사회복지 체제	5	노령자와 처음 출생한 아이들에 대한 사회복지 수준은 특히 중요하다.
19	고독사 %	2	한국사회의 고독사 비율이 점증하는 것이 문제이다.
20	낙태율	2	혼전 낙태율이 관심의 대상이다.
21	적령기 결혼률	3	적령기를 25-35세 정도로 보면 될 것 같다.
22	지역 주민의 건강도(건강진단 자료 점검)	3	지역의 건강검진의 결과들로 파악할 수 있다.
23	정신 질환자 %	2	정신과에서 치료한 환자 수를 점검해보면 될 것이다.
총점		100	

4) 왜 한국교회는 오늘의 시점에서 건강도시운동을 추진하여야 하는가?

건강도시운동은 이와 같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비기독교의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제공해주고 있다. 우리는 이 건강도시란 개념을 통해 우리 교회 내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총을 강조할 뿐 아니라,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도 관심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선교적 마음을 표현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보통의 건강도시운동의 지표들에 더하여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온전함의 문제로서의 영성적이며 교리적인 문제를 추가함으로써, 건강도시운동을 교회가 추진해 나가는 운동으로 포섭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오늘의 이 같은 건강도시운동은 교회 내의

이 같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주도적으로 벌인 건강도시운동은 오늘날 한국의 많은 구청과 도시들에서 시행되고 있는데, 이 운동이 교회 내에서 적용될 경우 다음과 같은 여러 장점들을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1) 교회의 건강도시운동에의 참여는 이전의 교회 일각에서 있었던 사회에 대한 비판적인 운동의 대안으로서, 사회에 대한 긍정적 참여의 가능성을 열어준다.

(2) 교회가 하는 사회봉사의 내용을 기독교적 구원으로서의 샬롬(shalom)과 인간의 통전적 복리(wholistic wellbeing)라는 큰 틀에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제공한다.

(3) 교회의 사회에 대한 봉사의 내용을 도시의 건강이란 개념에 집중함으로써, 교회가 하는 사회봉사의 내용이 추상화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기독교 밖에 있는 사람들이 언급하는 바, 기독교의 사회봉사가 오늘의 사회에 적절하지 못하다는 비판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4) 이러한 건강도시운동에의 참여는 교회가 비기독교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힘으로써, 선교의 장을 확대하는 기회가 갖게 될 것이다.

(5) 오늘에 만연해 있는 행복 개인주의에 대한 생각을 수정할 기회를 이 운동이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나만의 복리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복리를 추구하는 바의 건강도시운동은 우리로 하여금 함께 잘 살아가는 것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한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을 나만의 것으로 삼으려 해서 안 되며 모두를 위한 축복이 되게 해야 할 것이다.

(6) 오늘의 우리 대학을 평가하는 대학종합평가와 같이, 이러한 건강도시운동은 도시의 행복도와 도시의 행정의 질을 평가하는 지표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 도시의 행정과 오늘의 우리의 정치가 진정 시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공함으로써, 우리는 현재의 우리의 통치와 행정이 잘 되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 이와 같은 지표들은 도시의 행정가들을 자극하여, 그들이 시민들을 위하여 구체적인 봉사를 하게 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7) 이 같은 건강도시운동은 사회 및 정치권의 쓸 데 없는 이데올로기 논쟁 및 정치이념

논쟁을 불식시킬 것이다. 중요한 것은 그런 논쟁이 아니라, 어떤 정당이 구체적으로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 건강도시 지표의 활용을 통한 행정내용에 대한 평가는 여러 정치적 선거들에 있어 누가 우수한 후보인가를 판단할 좋은 기준이 될 것 수 있음을 필자는 강조하고 싶다.

(8) 교회의 주요한 사명은 복음을 전파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는 것이다. 물론 우리는 이 땅 위에 주님의 나라를 건설할 수는 없다. 우리의 노력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은 그 나라의 그림자 정도가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천국의 영광을 소망하는 자로서, 이 땅을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게 만들어 나갈 책임이 있다. 세계적으로 수천의 도시에서 진행 중인 이 같은 건강도시운동에의 참여는 교회봉사의 공공성(publicity)을 증진시킬 것임에 분명한 바, 교회의 운동적 차원에서 고려할 때 많은 가능성을 내포하는 것이다.

한국교회는 이제 사회봉사를 위한 실험단계에서 벗어나,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일들을 붙잡고 디아코니아의 일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사회에 진정한 도움이 되지 않는 피상적이며 추상적인 일들에 착념하는 것에서 탈피하여, 모두가 열정을 갖고 추진할 수 있는 사회적 목회(social ministry)의 목표를 한국교회는 이 시점에서 정하고 나가야 한다. 사회적 책임을 논하며 사회에 확실한 대안을 주지 못하는 논의만을 반복하는 현 한국교회의 현실에서 탈바꿈하여, 확실한 목표를 주는 건강도시운동을 한국교회의 실천과제로 정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라고 필자는 그간 여겨왔었다. 환경운동은 환경단체에서, 교통문제는 그것을 연구하는 단체에서, 건강문제는 다른 기관들에서, 복지 문제는 교회의 다른 시민운동 단체에서 운동을 벌이는 등, 이와 같이 분산된 노력을 하는 것에서 전환하여, 이런 문제를 하나의 큰 틀에서 묶어 추진하는 통전적 사회변혁운동 단체가 출현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건강도시운동은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서구 사회에서 출발되어 그간 세계 각처에서 실험되어온 신빙성이 있는 프로젝트로서, 그것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입증된 바 있었다. 차체에 건강도시운동에 대해 적실성을 보다 명백히하고, 그것을 교회가 주체가 되는 운동으로 변환한 후, 교회구성원들과 시민 전체가 협력하는 운동으로 승화해 나갈 때, 오늘의 부패한 사회도 정화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필자가 소속된 교단인 통합측에서도 건강도시운동의 다른 형태로서의 '생명공동체' 만들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2. 공공신학(public theology)이란 무엇인가?

1) 현대 미국신학의 맥락¹⁷⁾과 공공신학(public theology)¹⁸⁾

필자는 앞에서 WHO가 벌인 건강도시 운동에 대한 교회의 대응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에 덧붙여 필자는 이 건강도시운동이 공공신학적 맥락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고찰하려 한다.

오늘의 미국신학은 크게 예일학과와 시카고학과로 구분된다. 전자는 프라이(Hans Frei), 린벡(George Linbeck), 티먼(Ronald Thiemann) 등이 주도하였으며, 후자는 코프먼(Gordon Kaufman), 팔리(Edward Farley), 옥딘(Schubert Ogden), 거스탑슨(James M. Gustafson), 트레이시(David Tracy),¹⁹⁾ 브라우닝(Don Browning) 등이 주도하였다고 할 수 있다. 예일학과의 입장은 탈자유주의(postliberalism)라고 불리는 반면, 시카고학과의 입장은 수정주의(revisionism)²⁰⁾라 일컬어진다.

수정주의의 입장에 선 신학자들은 신학이 공적인 담론(public discourse)에 의해 전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신학이 사적 영역에 머물면서 섹트화하는 것에 대해 그들은 저항한다. 참된 기독교의 신학은 기독교인들에게 통용될 뿐 아니라, 이성을 가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이해될 수 있는 공공신학(public theology)이어야 한다고 그들은 말한다.²¹⁾

예일학과를 대변하는 신학자 린벡(George Linbeck)은²²⁾ 기독교인이 믿는 진리를 비기독교인에게 합리적인 방법으로 논증할 필요가 없으며 논증할 수도 없다고 하면서, 공공신학(public theology)의 의무를 느끼지 않는다. 어떤 문화언어적인 사회에 있는 사람이 그의 판단기준을 다른 공동체에 적용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며, 이에 그는 통약불가능성(incommensurability)이란 명제를 그는 제시하였다. 이런 탈자유주의적 신학은 오늘날 미국 신학의 하나의 중심축인 이야기신학(narrative theology)과도 연결된다. 이야기신학은 예일의 조직신학자 프라이에 의해 주도되어 오면서, 듀크대학교의 하우어와스(Stanley Hauerwas)나 프린스턴신학교의 스트룹(George Stroup) 등에 의해 이어지고 있다.²³⁾

17) Thomas Guarino, "Postmodernity and Five Fundamental Theological Issues," *Theological Studies*, vol. 57, no. 4 (1996), 680-685.

18) 영어 'public theology'라는 단어가 우리말로 종종 '공적 신학'으로 번역되기도 하였다. 최근 본 교단은 내년의 총회 주제를 정하며, 공적 신앙과 공적 복음에 대한 논의를 많이 하였다.

19) David Tracy, "Theology as Public Discourse" (<http://www.religion-online.org/showarticle.asp?title=1889>) 참조.

20) 또는 'liberals'로 불려진다.

21) 이와 같은 공공신학은 변증적 신학(apologetic theology)으로서 고백적 신학(confessional theology)과 대비된다.

22) 그의 책 『교리의 본성』(*The Nature of Doctrine*) 참조.

이상에서 우리는 오늘날의 미국 신학에 있어서의 두 가지의 분기에 대해 살펴보았다. 시카고학과와 예일학파다. 시카고학파는 교회 밖의 사람들을 설득하려는 공공신학적 전망을 더욱 강조하는 반면, 예일학파의 학자들은 우회적으로 교회 밖의 사람들과 조우하려 한다. 예일학파의 탈자유투의 신학은 기독교라는 범주 속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 기독교의 진리를 설명하는 것의 난관을 시카고학파의 학자들보다 더 잘 지적하고 있다. 우리는 아래의 장에서 이런 시카고학과와 예일학파 각각의 사람들의 공공신학적 논구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2) 공공신학의 정의와 주요 명제들

‘공공신학’²⁴⁾이란 개념을 처음 쓴 학자는 미국의 종교사회학자 벨라(Robert N. Bellah)로 추정된다.²⁵⁾ 그는 그의 논문, “Civil Religion in America”에서 초월적인 특정한 신앙들과는 구별된 시민 종교를 “사회에 있어서의 일반적인 공적 종교”(a common public religion)로

23) 이 부분은 본인의 글, “21세기 신학 어디로 가는가,” 『신학이해』 13집 (1995)를 참조하십시오.

24) 2001년에 *Journal of Public Theology*라는 공공신학에 관한 학술지가 미국에서 창간되었으며, 2007년엔 공공신학의 국제적 담론의 장인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Theology*가 창간된 바 있다.

25) 앞에서 언급되지 않은 최근의 공공신학 분야의 주요 저작들에는 다음의 것들이 있다.

Gavin D'Costa, *Theology in the Public Square: Church, Academy and Nation* (Blackwell Publishing Limited, 2005)

J. Moltmann, *God for a Secular Society: The Public Relevance of Theology* (Augsburg Fortress Publishers, 1999).

John Atherton, *Public Theology for Changing Times* (Society for Promoting Christian, 2000).

Max Stackhouse, ed., *God and Globalization*, volumes 1–3, (Trinity Press International).

Benjamin Valentin, *Mapping Public Theology: Beyond Culture, Identity, and Difference* (Trinity Press International, 2002).

Don S. Browning and Francis Schuessler Fiorenza, *Habermas, Modernity, and Public Theology* (Cross Road Publishing Co., 1992).

Len Hansen, *The Legacy of Beyers Naudé* (Sun Press, 2005).

William Storrar and Andrew Morton, eds., *Public Theology for the 21st Century* (London: T&T Clark International/Continuum, 2004).

Elaine Graham and Anna Rowlands, eds., *Pathways to the Public Square* (München: Lit Verlag, 2005).

Joseph George, ed., *The God of All Grace* (Bangalore: Asian Trading Corporation and United Theological College, 2005), especially the essays in Sections II and III.

AJ van der Walt, ed., *Theories of Social and Economic Justice* (Stellenbosch: Sun Press, 2005): see the essays by Nico Koopman and Dirk J Smit on theology and economic and social justice

Clive Pearson, ed., *Faith in a Hyphen: Cross-cultural Theologies Down Under* (Adelaide SA and North Paramatta NSW: Openbook Publishers and UTC Publications, 2004).

부르고 있다.²⁶⁾

미국의 대표적인 공공신학자, 스택하우스(Max Stackhouse)는²⁷⁾ 이 공공신학을 넓은 의미로서 정의한다. 그는 신학이 ‘공적’(public)이라고 불릴 수 있는 두 가지의 근거에 대해서 말한다. “첫째는 기독교인들이 믿는 바와 같이 우리는 비밀스런 집단이 아니며, 어떤 특권층도 아니고, 비합리적이지도 않고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도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는 모두에게 이해되어질 수 있고 필요한 존재라고 믿는다. 우리는 힌두교도 및 불교도들과, 유대교인 및 회교도들과, 인문주의자 및 공산주의자들과 합리적인 입장에서 논의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이러한 신학은 공적인 삶의 구조와 정책으로 인도될 것이다. 공공신학은 본성적으로 윤리적이기 때문이다.”²⁸⁾ 더 나아가 그는 공공신학의 네 자료 또는 근거(warrant)가 성경, 전통, 그리고 이성과 경험이라고 하였으며, 이것들을 근거로 하여 창조, 해방, 소명, 언약, 도덕법, 죄, 자유, 교회론, 삼위일체론, 기독교론 등의 주제(theme)들을 다루게 된다고 하였다.

다음으로 독일의 공공신학자 중의 한 명인 몰트만(J. Moltmann)은, 공공신학(theologia publica)은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 역사의 공적 세계 속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관심과 희망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그것은 기독교의 정체성의 핵심을 이룬다고 말한다. 이와 같이 공공신학은 사회의 공적 문제들에 대한 신학의 공적 상관성을 강조한다.²⁹⁾

공공신학은 시카고학과와 더 연관성을 갖지만, 예일학과의 신학자들도 공공신학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예일학과의 티먼(Ronald F. Thiemann)은 공공신학이란 말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공공신학은 기독교적 확신과 기독교공동체가 살고 있는 더 넓은 사회 문화적인 맥락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려는 것을 추구하는 신앙이다.”³⁰⁾

벤(Robert Benne)은 이르기를, 공공신학은 신학이 “살아있는 종교적 전통의 공적인 환경인, 우리의 공동적 삶의 경제 정치 문화적인 영역에로의 침투를 말한다.”고 하였다.³¹⁾ 공공신학

26) Robert N. Bellah, “Civil Religion in America,” *Daedalus* 96 no. 1 (Winter 1967), 3–4.

27) 그는 19세기 미국의 신학자 월터 라우센부쉬(Walter Rauschenbusch)의 사회복음의 신학에서 많은 영감을 받았었다.

28) Max Stackhouse, *Public Theology and Political Economy* (Grand Rapids: Eerdmans, 1987), 11.

29) William F. Storrar & Andrew R. Morton, *Public Theology for the 21st Century: Essays in Honor of Duncan B. Forrester* (London: T & T Clark, 2004), 3.

30) Ronald F. Thiemann, *Constructing a Public Theology: The Church in a Pluralistic Culture* (Louisville: Westminster/John Knox Press, 1991), 21.

31) Robert Benne, *The Paradoxical Vision: A Public Theology for the Twenty-first Century*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5), 4.

은 종교와 사회가 구별되는 것이긴 하되 서로 분리되어서는 안 됨을 언급한다. 또한 공공신학은 하나의 종교적인 전통이 존재하는 것으로서의 공적 맥락(public context)을 강조한다.³²⁾ 종교는 그 종교가 배태된 이전의 사회적 맥락을 무시할 수 없는 바, 오늘의 사회적 맥락 속에서 그 종교적 전통을 해석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벤의 입장은 스택하우스의 공공신학보다는 티먼의 입장과 더 유사성을 갖는다.

공공신학은 신학과 윤리의 교차 부분에서 파생된 신학 분야로, 그것을 말하는 학자마다 그 정의가 다양한 편이나, 그 공통분모들을 묶어 대략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³³⁾

먼저 공공신학은 교회 내의 사람 뿐 아니라,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도 그 종교적 담론이 이해되고 확산되며 설득(persuasion)력을 가질 수 있도록 의도된 신학이다. 이런 의미에서 그 공공신학은 과학적이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 종교적 공동체뿐 아니라, 더 넓은 사회를 포괄하는 문제에 대해 진술한다. 세 번째로, 공공신학은 이 같은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이론에 있어 모든 것에 열려져 있는 바, 다양한 도구와 자료와 방법들을 채용하고 있다. 네 번째로, 이런 의미에서 공공신학자란 어떤 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회의 모든 사람들을 향해 설득력 있게 사회의 공적인 문제를 분석하고 논의하며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자라고 할 수 있다.³⁴⁾

미국의 신학자 피어슨(Clive Pearson)은³⁵⁾ 공공신학의 명제를 다음의 몇 가지로 나누어

32) Robert Benne, *The Paradoxical Vision: A Public Theology for the Twenty-first Century.*, 6-7.

33) Eugene Harold Breitenberg, Jr. "The Comprehensive Public Theology of Max Stackhouse: Theological Ethics, Society and the Theological Education (UMI: Union Theological Seminary and PSCE, Ph. D. Dissertation, 2004)," 25-27.

34) 공공신학 분야의 주요 연구단체 웹 사이트들을 아래에 소개하였다. (<http://www.ctinquiry.org/gnpt/index.htm>)
www.sun.ac.za/theology/bnc.htm
arts.hkbu.edu.hk/ctr_cscs.asp
www.st-andrews.ac.uk/divinity/
www.div.ed.ac.uk/theolissues
www.tcd.ie/ise/
www.ptsem.edu/grow/kuyper/FAQ.htm
www.arts.manchester.ac.uk/subjectareas/religionstheology/
www.csu.edu.au/faculty/arts/theology/pact/
www2.yorks.ac.uk/
www.brill.nl/ijpt
www.cpjustice.org/

35) http://www.csu.edu.au/faculty/arts/theology/pact/pdf/What_is_Public_Theology.pdf 피어슨은 현재 미국의 Public and Contextual Theology Strategic Research Centre의 부원장(Associate Director)으로 일하고 있다.

설명한 바 있다.

(1) 공적신학은 넓게는 기독교 신앙이 사회의 문제들에 대해 말하는 방식과 연관된다. 그것은 기독교 신앙과 교리의 ‘공적 상관성’(public relevance)과 관련된다.

(2) 과거의 다른 많은 기독교인들도 신학이 공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하면서 공적인 영역에서 신학을 말한 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신학은 비교적 새로운 학문이다. 이런 공공신학은 신앙의 사사회와, 기독교인들의 개인 구원에만의 좁은 관심에 반대하여, 미국에서 일어났다.

(3) 공공신학은 사회의 주요 문제들에 대한 기독교인들의 헌신에 있어 실천적 기반과 함께 지성적 기반이 필요함을 말한다. 그러므로 공공신학은 그 개념에 있어서의 엄밀함이 요청된다.

(4) 공공신학은 그 신학이 기독교인에만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 관계되는 것임을 강조한다. 그리하여 그것은 탈기독교 세계에서 기독교 신앙의 주변적 위치뿐 아니라, 다른 학문들의 가치를 동시에 인정하는 전망에서 고찰되어야만 한다. 예를 들어 창조의 교리는 인류 전체와 상관이 있다. 만약에 하나님이 창조자라면, 하나님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만의 창조자가 아니며, 모든 것들의 창조자가 되신다. 유사하게 오늘의 많은 사회적 윤리적 논쟁들이 신학과 상관되게 된다. 예를 들어 유전적 연구와 생태학은 기독교의 창조교리에 대한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이다.

(5) 공공신학은 학문적 엄밀함을 보유한 다른 수준의 다양한 청중들을 갖는다. 이론적이며 실천적 측면에서 다양한 청중들에게 말하는 학문의 발달이 이루어져 왔다. 이론적인 논의에서, 다양한 신학적 이론들의 효용성이 고찰되고 있다. 이에 공공신학은 인권이나 정의 등과 같은 세속적인 언어로 종종 실천적 질문들에 대해 말하고 있다.

(6) 공공신학은 지식 시장들에서 많은 목소리 중 한 목소리를 접하는 것이다. 신학은 더 이상 공적 영역에서의 유일한 목소리가 아니다. 그것은 어떤 특권을 갖고 있지 않다. 다른 신학의 유형들과는 다르게, 공공신학은 ‘회심’(convert)을 추구하지 않는다. 다만 사회의 웰빙에 관여할 뿐이다.

(7) 공공신학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신앙과 사회가 직면한 실천적 문제 사이에 연계를 만들어 주는, 어떤 자료(resource)들을 제공하려 한다.

피어슨의 공공신학에 대한 이상의 설명에서, 우리는 몇 가지의 의미들을 간추리게 된다. 먼저 공공신학은 교회만을 위한 신학이 아니며,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기독교의 신앙을 설명하며 그들을 설득하고 사회적 변혁을 위해 영향력을 갖는 신학이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공공신학

은 기독교인이나 비기독교인이 공유하는 보편적인 실천적 도덕적 사유(universal practical moral reasoning)와 자연법(natural law) 및 공유된 도덕법(moral law)에 호소하려 한다. 이런 각도에서 공공신학은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이 공유하는 바의 공동 도덕(common morality)을 강조한다. 공공신학은 단지 기독교 밖의 사람들에게 신학을 선포하는 데에 그치지 않으며, 그를 위한 이론적이며 지적인 논구를 하려 한다. 이에 공공신학은 다른 신앙이나 전통을 갖거나 다른 학문 분야의 사람들을 대화의 대상에서 배제하지 않으며, 그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지속적인 대화의 하려고 노력한다.

이에 공공신학의 입장에 있는 신학자들은 그들의 용어의 선택에 있어서도, 지나치게 신학적이며 교리적인 개념들을 가진 용어보다는, 비기독교인과 대화하기 쉬운 용어를 선택하려 한다. 예를 들어 교회적 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자’는 말을 한다면, 공공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비기독교인들도 설득할 수 있는 ‘건강하고 행복한 나라를 건설하자’라는 공동적인 개념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다.³⁶⁾ 또한 미국의 프린스턴 신학대학원에서 은퇴한 신학자인 스택하우스(Max Stackhouse)는 소명과 청지기라는 기독교적 개념보다는 보다 보편적인 ‘공공선’(common good)이란 일반적인 도덕적 개념을 갖고 기독교인의 사회적 책임을 진술하려 한다.³⁷⁾ 물론 이러한 공공신학이 기독교의 독특성이나 교회의 정체성을 포기한 신학으로 봐서는 안 될 것이다. 오히려 비기독교인과의 공동의 장을 만들어 그들을 공동의 장으로 나아오게 한 후, 그들에게 기독교의 독특함을 전할 기회를 삼는 전략을 공공신학은 갖는 것이라 할 수 있다.

3) 기독교 사회윤리에서의 교회적 신학(ecclesial theology)과 공공신학(public theology)

아이리프 신학대학의 기독교 윤리학자 윌뱅크스(Dana Wilbanks)는 미국의 기독교 사회윤리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서술한 바 있다.³⁸⁾ 그는 오늘의 미국신학이 사회윤리면에서의 다양함

36) 이전 미국의 수정교회의 목회자로 있었던 쉘러(Robert H. Schuller) 목사님은 비 기독교인들을 전도하기 위해 기독교의 진리를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통해 설교한 바 있었다. 쉘러 목사님은 기독교인의 믿음을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라 개념으로 소개한 바 있다. 이 같은 적극적인 사고방식(possibility thinking)이란 개념은 기독교인만이 소통할 수 있는 용어라기보다는 비 기독교인도 같이 통용할 수 있는 것으로 상당히 공공적 기능을 하는 개념이라 생각된다.

37) Max Stackhouse, “Theological and Ethical Considerations for Business Decision-Making,” *New Catholic World* 223 no. 6 (1982): 258.

38) Dana Wilbanks, “The Church as Sign and Agent of Transformation,” ed. by Dieter T. Hessel, *The Church's*

을 보이고 있다고 말한다. 그럼에도 이 같은 복잡한 최근의 기독교 사회윤리의 전개를 해방신학(liberation theology), 교회적 신학(ecclesial theology), 공공신학(public theology)의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고 하였다. 20세기 후반 남미의 해방신학이 미국의 사회윤리 분야에 하나의 충격으로 전달되었다. 해방신학은 기존의 미국신학이 미국의 불의한 정치 경제적 시스템을 옹호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세계의 가난하고 억압받는 사람에 대한 미국의 힘의 사용에 대해 무비판적이라는 것이다. 해방신학은 사회 역사적 분석을 통하여 왜곡되고 소외된 지배체계(the systems of dominance)를 고발하였으며, 역사 속에서 인간화하는 하나님의 구속적 행동을 강조하였다. 물론 미국의 신학자들은 이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것은 오늘의 미국신학이 사회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는 데 충분한 역할을 하였다. 해방신학의 주요한 기여는 교회의 사회적 책임이 실로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각성케 하였다는 데 있다.

해방신학의 영향에 따라 미국 주류 교회들에 사상적 변화가 생기게 되었다. 해방신학에 대한 반응에 의해 생기게 된 첫 번째의 것은 듀크대학의 하우어와스(Stanley Hauerwas) 등에 의한 내러티브 윤리(narrative ethics)이다. 그는 사회 정책적 대안을 교회가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기독교인으로서의 인격(character)을 갖추는 것이며, 나아가 세상과 차별되는 나뉠의 교회공동체(church community)를 구성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세상에 대해 어떤 것을 제시하기에 앞서 교회가 먼저 교회답게 됨으로써 세상을 변혁할 수 있다는 논지이다. 그는 이러한 인격 형성을 위해 기독교적 이야기(story)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함을 말하면서, 그 이야기는 오늘과 같은 폭력(violence)적인 세상 속에서 비폭력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창조를 가능케 하여 준다고 하였다. 거스탑슨은 이 같은 하우어와스의 윤리가 소종파적(sectarian) 한계에 머무를 위험이 있다고 비판하였다.³⁹⁾

세 번째의 것은 공적인 에토스를 변혁하려는 공공신학(public theology)으로서의 반응이다. 기독교의 신학이 교회 내의 비전적(esoteric) 신학으로만 머물러서는 안 되며, 교회밖에 있는 사람에게도 이해될 수 있는 공공신학 및 보편적인 공동 도덕(common morality)의 담론으로 표현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스택하우스(Max Stackhouse)는 이런 입장에서 이원론적 이야기 윤리를 비판하였다. 기독교윤리는 교회 내의 윤리에서 벗어나, 현대 사회의 공적 영역(public realm)과 접목하여야 한다. 이에 있어 스택하우스는 성경과 교회의 전통이 이런

Public Role (Grand Rapids: Eerdmans, 1993), 21 ff.

39) James M. Gustafson, "The Sectarian Temptation," *Catholic Theological Society of American Proceedings* (1985), 40.

입장을 지지한다고 하였다. 물론 스택하우스는 사회에 대한 교회의 제국주의적 지배를 말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기독교의 교리가 도그마하고 종파적인 입장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고자 하였던 것이다.⁴⁰⁾ 공적신학은 우리의 신학이 교회 내 목회자의 활동에 대해 집중하는 목회신학(pastoral theology)으로 머물러서는 안 되며, 세계를 변혁하는 정치적 참여의 신학, 곧 폭넓은 실천신학(practical theology)으로 전개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이상과 같이 교회 내로 문제를 축소하는 교회적 신학과, 사회변혁의 문제까지도 교회의 선교적 과제로 아우르는 공공신학을 소개하였다. 교회적 신학은 교회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신학인 반면, 공공신학은 사회참여의 면에 있어 더 적극적이고 행동적이다. 이에 있어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는 교회의 정체성을 강조하면서도, 사회참여에 있어서의 적극성을 잃지 않는 것이다. 장신근 교수는 이러한 신학들을 비교하면서, 트레이시 등의 수정적 상관관계 모델(Revised Correlational Model)은 공적 영역을 접근하기 위해 인간이 가진 공통적 경험을 과도하게 의존한 나머지 기독교의 정체성을 양보할 위험이 있으며, 프라이나 티먼 등의 임시적인 상관관계 모델(Ad hoc Correlational Model)은 기독교의 정체성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협소한 현실주의에 빠질 위험이 있음을 말하였다.⁴¹⁾

흥미로운 점은 예일 학파에 속한 티먼의 입장도 크게 공공신학의 범주에서 보는 견해가 있는 것이다.⁴²⁾ 티먼은 *Constructing a Public Theology: The Church in a Pluralistic Culture* 이란 책을 쓴 바 있는데, 그는 그의 신학을 일종의 공공신학으로 소개한다. 곧 예일 학파의 입장도 교회 밖의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 차단된 입장이 아니며, 그들과 서로 의사소통할 가능성이 있는 바, 사회에 영향력을 미쳐 사회를 변혁해 나갈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교회적 신학이라고 하여 교회 내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며, 교회 밖을 향해 열려 있음을 언급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앞서서도 말하였듯, 교회적 신학은 그 신학 나름대로 사회변혁의 방안이 된다. 곧 교회가 교회다울 때, 사회가 변하게 된다는 논리이다.

티먼은 클리포드 게이저즈(Cliffor Geertz)의 입장의 의거하여, 좁은 범위의 기독교 공동체는 더 넓은 맥락에서 전체 사회의 문화적 구조와 연결되어 있음을 말하면서, 기독교의 독특한 확신이 넓은 사회라는 공적인 장에서 교차할 수 있음을 언급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교차는 언제나 불변하는 토대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변 하는 정황 속에서 임시적으로 반영되

40) M. L. 스택하우스, *Public Theology and Political Economy*, 김수영, 심정근 역 『대중신학과 정치경제학』 (서울: 도서출판 로고스, 1991).

41) 장신근, 『공적 실천신학과 세계화 시대의 기독교교육』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2007), 88.

42) 장신근, 『공적 실천신학과 세계화 시대의 기독교교육』, 73-80.

는 것임을 그는 말한다.⁴³⁾

티먼과 동일한 입장에 있는 찰스 캠벨(Charles Campbell)은 그의 공적 실천신학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진술한다. 실천신학으로서의 설교학이란 교회를 문화—언어적으로 독특한 그리스도교 공동체로 세워, 그리스도인들의 독특한 신앙과 공동체성을 형성하여, 공적영역에 기여하도록 하는 행위임을 그는 말한다. 곧 기독교인의 독특한 정체성 형성이 공적 담론으로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공적 영역에 기여할 수 있는 것임을 그는 설명한 것이다. 기독교의 신학은 자유주의 신학이 말하는 바와 같이, 사적인 인간경험의 표현이 아니며, 공동체이고 공적일 수밖에 없음을 그는 언급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는 한 사회 속에서 교회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에 영향을 주며, 그렇게 형성된 교회 공동체의 하부구조는 가변적인 사회의 공적인 영역과 상호작용하고 있음을 그는 강조한 것이다.

티먼이 추구하였던 공공신학의 목표는 교회와 세계 또는 근본적 질문과 대답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 전체적 이론을 제공하려 하였던 것이 아니며, 기독교적 확신이, 오늘의 공적인 삶을 특징짓는 실천들과 교차되는, 특정한 장소를 확인하는 것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티먼의 공공신학은 보편적 이성을 기반으로 한 토대적 입장의 실천신학이 아니며, 기독교적인 확신과 오늘의 삶과 경험에 대한 심층 기술(a thick description)의 내용이 임시적으로 만나는 장을 전제한다.⁴⁴⁾

하지만 필자는 티먼이나 하우어와스와 같은 교회가 교회다울 때, 사회는 바르게 변혁되게 된다는 논리를 갖는 신학을 진정한 공공신학의 범주로 넣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많다. 정치나 경제 그리고 학문이나 종교와 같은 공공영역에 대한 논의를 직접 회피한 채, 일종의 하부구조의 문제만을 다루는 탈자유주의적인 신학의 경향으로는 오늘의 공공적 문제들을 대처하기에는 너무 빈약한 것 같다. 오히려 월터 라우센부쉬(Walter Rauschenbusch), 라이홀드 니버(Reinhold Niebuhr), 존 웨슬리(John Wesley), 던컨 포레스터(Duncan Baillie Forrester),⁴⁵⁾ 아브람 카이퍼(Abram Kuyper)와 같이 사회적 이슈들을 신학적 장으로 끌어들이 적극 다루는 능동적 공공신학의 노력이, 오늘과 같은 급변하는 사회에 생활하는 우리들을 위해 더 요긴 것이라 여겨진다.⁴⁶⁾

43) 장신근, 『공적 실천신학과 세계화 시대의 기독교교육』, 73-76.

44) Ronald F. Thiemann, *Constructing a Public Theology: The Church in a Pluralistic Culture*, 21-23.

45) William F. Storrar & Andrew R. Morton, *Public Theology for the 21st Century: Essays in Honor of Duncan B. Forrester* (London: T & T Clark, 2004). 이 책에는 로빈 길(Robin Gill), 맥스 스택하우스, 위르겐 몰트만, 마이클 노스코트(Michael Northcott) 등 공공신학에 공헌이 많은 학자들의 글이 실려 있다.

4) 공공신학의 비판에 대한 반성

공공신학에 대한 몇 가지의 비판들과 그에 대한 응답을 아래에 열거하였다.⁴⁷⁾

(1) 먼저 바르트 신학의 견지에서 공공신학에 대한 비판이다. 공공신학은 인간의 이성이나 경험 등을 계시와 동등한 차원에서 신학의 근거로 채용하므로, 일반 계시의 위치를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공신학은 일반 계시가 우리의 믿음을 야기하는 것으로 말하지 않는다. 신앙을 가진 자는 그의 전망 안에서 인간의 경험이나 일반 계시를 바로 사용할 수 있음을 공공신학은 언급하는 것이다.

(2) 두 번째의 비판은 공적인 영역의 일에 봉사하면서, 기독교적 전통에 반대되는 제도와 이념 및 권력들에 기독교가 예속되는 것 같다는 비판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 같은 공공신학의 입장을 그러한 기독교에 반대되는 입장들에 예속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같은 사회를 변혁하려는 의도에서의 고려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다음의 비판은 본질적인(substantive) 공공신학을 다룸에 있어서의 반대이다. 단순히 구성적인(constructive) 입장에서 공적이며 사회적인 문제를 다루면 되지 그것을 이론화 하여 비기독교적인 집단에 속한 사람들까지 설득하려는 것은 더 많은 반대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이다. 그러나 공적인 신학은 그러한 비 기독교인들의 반대를 줄여 설득하려는 적극적인 입장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는 응답이 가능하다.

(4) 네 번째의 비판은 공공신학이 기독교의 신앙이나 교회나 종교가 사회에 어떤 기능을 제공하는 것으로서의 기능주의적이고 도구주의적인(functionalist and instrumentalist) 측면으로 환원하고 있다는 것이다.⁴⁸⁾ 그러나 공공신학을 강조하는 학자들은 본인들이 그러한 작업을 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의 부르심에 바로 응답하는 것임을 강조한다. 곧 기독교의 신앙을 도구적인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며, 이미 절대적인 신앙을 가진 자들의 책임을 강조하는 것이 공공신학이라고 그들은 말한다. 그러므로 신앙이나 종교는 사회적 기능상의

46) 영국의 레슬리 뉴비긴(Lesslie Newbigin), 던컨 포레스터(Duncan B. Forrester), 네덜란드의 아브라함 카이퍼(Abraham Kuyper), 미국의 월터 라우센부쉬(Walter Rauschenbusch), 라인홀드 니버(Reinhold Niebuhr), 제임스 파울러(James Fowler), 짐 윌리스(Jim Wallis), 리처드 뉴하우스(Richard Neuhaus) 등이 공공 신학의 입장에 있는 신학자들로 언급되기도 한다.

47) Eugene Harold Breitenberg, Jr. "The Comprehensive Public Theology of Max Stackhouse", 183-186.

48) Eugene Harold Breitenberg, Jr. "The Comprehensive Public Theology of Max Stackhouse", 190-191.

이유로 채택되거나 폐기되는 것이 아님을 그들은 강조한다.⁴⁹⁾

(5) 스택하우스는 윤리의 유형을 목적론적 윤리, 의무론적 윤리, 덕의 윤리(virtue ethics)로 구분하는데, 그의 공공신학에선 덕의 윤리에 대한 강조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다. 사회 정책적이며 공적인 문제를 다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간의 도덕적 성품을 준비하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임을 우리는 강조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⁵⁰⁾

(6) 다음으로 공공신학은 비기독교인이나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과의 대화를 강조함으로써 일종의 종교적 다원주의가 아닌가 하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공공신학이 말하는 대화가 종교 간의 대화가 아니며, 이 사회문제를 놓고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 간의 대화라는 것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오히려 그들과의 대화를 통해 우리 사회에 진정 유리한 논리가 기독교가 제공하는 생각임을 보이면서, 그들에게 기독교의 진리를 받아들이게 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진리 앞으로 인도하려는 선교적인 의도를 가진 것이 공공신학임을 우리는 인정하여야 할 것 것이다.

(7) 또 다른 비판은 이미 앞에서 언급한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곧 공공신학은 공적인 문제와 교회 밖의 사람들에 대해 관심을 갖는 나머지, 기독교의 독특성과 정체성을 손상할 것이라는 비판이다.⁵¹⁾ 물론 미국의 탈자유주의 신학과 비교해 볼 때에는 기독교의 정체성적 측면에서의 약점이 있기는 하지만, 공공신학을 일방적으로 기독교의 정체성을 상실한 신학으로 보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 공공신학은 기독교적인 신앙을 가진 자들의 공적 문제에 대한 관심을 말하는 것이지, 공적인 장에 나가기 위해 기독교적 신앙과 가치관을 포기함을 말하는 신학이 아니다. 공공신학은 기독교의 신앙과 교회 공동체의 형성이, 오늘의 공공부문(public sector) 들 및 공공영역(public sphere)의⁵²⁾ 문제들의 해결에 많은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면서, 기독교

49) Eugene Harold Breitenberg, Jr. "The Comprehensive Public Theology of Max Stackhouse", 191-192.

50) Eugene Harold Breitenberg, Jr. "The Comprehensive Public Theology of Max Stackhouse", 197-198.

51) Robert Gascoigne, *The Public Forum and Christian Ethics* (Cambridge: Th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1), 1.

52) http://demos.skhu.ac.kr/scholar/doc_files/98public.hwp 아래의 글은 1998년 7월 8일 프레스센터에서 있었던 "21세기 한국사회와 공공영역 구축의 전망 토론회"의 내용 중에서 발췌한 것이다.

공공영역(public sphere, Öffentlichkeit)이란 사적 영역(private sphere)과 구별되는 공적인 영역을 지칭한다. 사적 영역이 개인적 생활, 노동 그리고 가족 내의 또는 개인적으로 극히 친밀한 인간관계를 말한다면, 공공영역은 초개인적으로 구조화된, 사회적 개인들 사이의 행위와 의사소통 관계를 의미 한다.... 공공부문(public sector)은 국가가 경제에 정책적으로 개입하는 공간을 뜻한다. 이와 함께 공공부문은 특정한 행위주체를 지칭하기도 한다. 즉 공공부문이라는 공간을 형성하고 이곳을 주된 활동영역으로 삼고 있는 제도 및 기관도 공공부문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공공부문은 국가기관과 경제과정에 정책적으로 개입하기 위한 도구로 설립된

신앙과 정체성으로서의 가치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필자는 앞에서 공공신학이 기독교의 정체성을 침해하지 않고 있음을 어느 정도 제시한 것 같다. 여기서 필자는 이런 공공신학의 적용함에 있어 우리가 주의하여야 할 유의점 등이 없는지를 고찰해보려 한다.

공공신학을 오늘의 한국교회에 적용하는 데에 있어 생각해야 될 유의점 중 하나는 기독교적인 구원관과 교회론의 의미를 바로 이해함이 없이, 기독교인이 공공의 문제를 다룰 시, 천박한 논의에 그치지 쉬움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늘의 기독교인들의 수많은 공적 문제에 대한 논의들을 살필 때, 그것이 과연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바탕으로 논구된 것인지 의심이 가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것은 본인의 신앙상의 불투명성도 그 이유 중에 하나이겠지만, 우리의 신앙과 기독교적 신념을 가지고 공공의 문제를 다룰 때의 나름의 방법론이 허약하여 생긴 문제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상의 내용을 분명히 함과 동시에, 그 신앙의 내용을 우리의 공적 영역으로 해석해내는 방법론의 성찰에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므로 구성적 공공신학의 논의와 함께 그것의 방법론에 천착하는 본질적 공공신학의 논의에도 우리는 착목하여야 할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다.

특별한 기관의 총체라 할 수 있다. 그 구체적인 예로 중앙 및 지방행정기관,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자기관, 재투자기관, 정부출연기관, 지방공기업, 특수재단사단법인 형태의 공공법인체 등을 들 수 있다. 전세계 100여개국에 걸쳐 약 1500만의 공공부문 조합원을 포괄하고 있는 “공공서비스 인터내셔널”(Public Services International) 공공부문이 제공해야할 필수서비스의 목록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Martin 1993: 189 재인용).

- 운수, 에너지, 통신, 수도, 하수 및 쓰레기, 주택 등
- 포괄적인 공공의료 서비스
- 타아를 포함한 전연령층에 동일한 기회를 주기위한 교육 및 직업훈련 서비스
- 필요시 전 시민에 대한 적절하고 포괄적인 사회보장
- 지속가능한 개발의 원칙에 부합되는 자연환경 보호를 위한 강력한 제도
- 경찰, 교통, 국방, 소방을 포함한 대내외적 안전보장
- 공정하고 독립적인 사법체계
- 고용 및 노동시장 서비스
- 경제 및 사회정책에 대한 자문 서비스
- 방송, 공원 그리고 국립공원을 포함한 문화 및 여가 서비스
- 국제관계와 대외 무역을 위한 제도
- 은행, 금융 그리고 보험서비스
- 상거래활동의 규율과 지원을 위한 구조
- 농업 자문 및 지원 서비스
- 관세 체계와 서비스

3. ‘건강도시운동’(Healthy Cities Movement)에 대한 공공신학적 성찰

필자는 여기까지에서 세계보건기구가 펼쳤던 건강도시운동과 공공신학적 전망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에 있어 이러한 건강도시운동은 작금의 예상 통합교단에서 벌이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운동, 곧 ‘마을목회’ 운동과 그 궤를 같이 한다. ‘마을목회’ 운동은 개인적 행복만을 추구하는 우리의 삶에서 마을 공동의 행복으로 우리의 눈길을 돌리게 한다. 나 개인만의 행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 모두의 행복이 중요함을 일깨우는 것이다. 교회에 나가 나만의 잘 됨만을 위해 기도하던 우리의 관습에서 벗어나 마을의 복리와 행복을 위해 주님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 위한 노력이 이 마을공동체 만들기 운동을 추동하는 힘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우리는 인간의 행복과 구원의 문제를 너무 개인주의적으로 생각해온 경향이 있다. 인간의 행복은 개인에 국한된 행복만으로 완결되지 않는데, 우리는 공동체와 분리된 개인의 행복만을 추구해왔던 것이다. 예를 들어 가족을 폭행하는 아버지가 있는 가족들의 행복은 나 개인의 정신적 안정만으로 보장되지 않다. 아버지의 폭행 상황 가운데에서 나만의 행복만을 지키고자 하는 노력은 진정한 행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다. 이 같은 어려움에 있는 가족 구성원을 구해내려면, 먼저 아버지의 폭력이 방지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법률적이며 사회적인 많은 조처들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아버지의 폭력을 근절시키는 것이 그 가족 구성원 모두의 행복을 위한 필요조건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 개인 행복의 외연인 공동체의 행복을 강화하기 위한 주요 목표는 무엇인지 묻게 된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 정의와 평화의 나라를 이루는 것, 모든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것 등 그것의 구체적인 목표들이 제시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여러 목표들도 구체목표들로서 가능하지만, 무엇보다 건강한 생명공동체를 만든다는 목표가 성경의 입장에서나 교회 밖의 사람들과의 공공적 차원에서 바람직한 목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성경 중 특히 요한복음은 기독교의 구원을 영생이라는 개념으로 정리한다. 주 예수를 믿어 영생을 얻는 것이 기독교의 구원의 제일 목적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영생의 개념은 주님이 주신 ‘조예’로서의 생명을 중시하는 개념으로, 우리는 그 개념을 공동체적인 입장에서 생명공동체 만드는 운동으로 승화시킬 수 있을 것 같다. 오늘날 강조되는 생명공동체 만들기 운동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는 마을을 생명이 숨 쉴 수 있는 생태적인 환경으로 만드는 것으로, 우리는 이 운동의 목표를 생태적 생명공동체 마을 만들기 운동으로 정리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나 개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마을 전체를 생명이 보호되는 생태적이며 건강

한 마을로 만드는 것이 성경의 생명운동을 공공신학적 입장에서 구현하는 한 방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여 본다.

이 같은 생태적이며 건강하고 행복한 마을공동체 만들기 운동은 건강도시운동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우리는 그 마을공동체 만들기 운동을 건강도시 만들기 운동으로 시작하여도 무방할 것이라 생각된다. 물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은 건강한 도시 만들기 운동으로 마무리 되는 것은 아니며 그보다 더 크고 심오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 그 시작에서 서로 조우하는 것임을 언급하고 싶다.

이 같은 건강도시운동은 해외선교적인 차원에서 CHE(Community Health Evangelism, 지역사회 보건선교)라는 개념으로 실천되어 온 바 있다. 이 지역사회 보건선교 운동을 가장 선두에서 진행하여 온 단체는 월드비전으로 이 단체를 중심으로 많은 기독교 선교단체들이 세계의 마을들을 건강한 마을로 만들기 위한 선교적 노력을 해왔던 것이다. 이들의 입장은 이러한 가난한 국가의 사람들을 경제적이며 육체적으로 돕는 것과 주님의 영적인 복음이 서로 나뉘지 않는다는 것에서 출발한다. 그들을 사랑하여 그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려는 선교자들은 그들의 육체적인 어려움에 무관심할 수 없다는 견지이다.

이 같은 CHE 운동은 일종의 지역사회 봉사프로그램을 가지고 가서 그 마을에 실천하는 운동이기보다는 피선교지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건강하지 못한 상황들을 스스로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자각하게 하고 그들이 그들 자신에게 필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게 하며 그들의 힘을 결집하여 그것을 타개해나가도록 하는 운동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러한 CHE의 선교 방법은 일종의 역량강화(empowerment)의 방법을 채용한다. 역량강화란 고기를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고기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자신들이 자신의 행복을 일구어나가는 주체가 되어서, 공동체의 행복을 키워나가는 일을 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역량강화의 방법을 더 깊이 고찰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개발(communitry development) 이론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경영학의 조직이론(organization theory)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요청된다. 이런 이론들은 한국에서 아직 깊이 논의되지 않은 분야로서, 한 마을을 행복하고 건강하게 만들려는 운동을 실천하는 데에는 없어서는 안 될 기초적 연구일 것이라 생각한다.

무엇보다 이 운동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그 마을이 경제적으로 자조할 수 있는 마을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위한 방안으로 ‘사회적 기업’(social business)의 방식이나 ‘선교로서의 사업’(Business as Mission, BAM) 및 ‘마이크로크레디트’(Micro-

credit) 운동들이 연구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그들에게 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들의 생계를 스스로 지탱할 수 있게 하는 역량강화의 방법으로서의 이 같은 실천들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운동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방안들이다. 오늘의 한국교회의 국내 선교를 위해서도 이런 운동들에 대한 깊은 이해가 요구되는데, 우리는 교회의 봉사가 구체의 차원과 정신적 위로의 차원을 넘어 사회 구조적인 개선의 노력까지 과급되게 하여야 할 것이다.

한 도시나 지역사회를 건강하게 만들어 주님이 기뻐하는 복음공동체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영적이며 정신적인 변화가 없이는 불가능한 것으로, 이를 위해 복음과 성령의 힘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된다. 기독교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운동은 일면 인간의 보이는 육체적 건강과 생명을 증진함과 동시에 인간의 정신적이며 영적인 건강을 되살리는 것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각 마을에 교회를 세워 사람들로 하여금 영적인 각성을 하게 하며, 새 삶의 목표를 갖게 하는 것이 이 운동을 위한 주요한 자원이 된다.

건강도시운동은 오늘 우리 교회가 공공신학적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좋은 실천의 구체 방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기독교인뿐 아니라 교회 밖의 사람들도 공감할 수 있는 주제를 채택하여 서로 힘을 합해 아름다운 마을을 만들어 가다 보면 서로가 가지고 있는 뜻을 이해하게 될 것이며 이러한 소통을 통해 그들도 복음에 접목될 것이라 생각한다.



1. 건강도시(healthy cities) 운동의 시발

-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전반에 이르는 사회적 변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산업화(industrialization)와 도시화(urbanization)**라 할 수 있다. 산업화된 공장들이 도시에 들어섬에 따라, 농촌인구의 도시유입으로 도시 인구의 팽창이 수반되었으며, 이에 거대 도시의 출현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작금의 통계는 세계 78억 인구의 거의 3/4이 도시에 거주하는 것으로 말하고 있다. 특히 8명 중 1명은 인구 500만이 넘는 메가시티 거주자들이다. 도시가 행복하지 않으면 3/4의 인류가 행복하지 않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도시의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양호회신학대학교

- 1) 1981년 'Health for All by the Year 2000'(만인을 위한 건강)
- WHO(세계보건기구)는 건강을 위한 자원이 골고루 분포되어야 하며, 중요한 건강의료가 **모든 사람에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건강은 가정, 학교, 직장 등 여러 생활현장에서 출발함을 언급하였다.


 양호회신학대학교

- 2) 1984년 '보건의료를 넘어' (Beyond Health Care-Toronto 2000)
- 토론토에서 열린 이 회의 동안, 캘리포니아 버클리 대학의 덜(Leonard Duhl) 교수가 도시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보다 광범위한 요인들에 대한 검토를 통해, 국민건강을 개선할 수 있다는 내용의, 건강도시(healthy Cities)에 대한 강의를 하였다. 그는 건강을 개인의 삶의 스타일보다는 **사회적인 문제로** 접근하였다.

 양호회신학대학교



- 3) 1986년 the Ottawa Charter for Health Promotion (First International Conference on Health Promotion, Ottawa, 21 November 1986)
- 건강을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웰빙의 온전한 상태로 규정
- WHO는 건강을 위해, 평화, 피난처, 교육, 음식, 수입, 안정된 생태계, 지속 가능한 자원들, 사회정의, 공평(equity) 등의 포괄적 조건들이 필요 불가결한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Ottawa Charter for Health Promotion



- - Health Promotion (총체적 웰빙)
- - Prerequisites for health (다차원적)
- - Advocate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환경, 행동과학, 생물학 등 다양한 요소들)
- - Enable (기회와 자원의 공평한 분배)
- - Mediate (정부, NGO, 지역자치단체, 산업, 미디어, 개인, 가정, 공동체 등의 중재 요구)
- - Health Promotion Action Means: Build healthy public policy (Health promotion policy 필요)



- - Create supportive environments (환경문제)
- - Strengthen community action (Community development)
- - Develop personal skills (providing information, education for health and enhancing life skills)
- - Reorient health services (a health care system)
- - Moving into the future (Caring, holism and ecology)



- - **Commitment to health promotion** (to recognize health and its maintenance as a major social investment and challenge)
- - **Call for international action**



2. 건강도시의 정의와 구성 요소들(elements)

- 1) 건강도시의 정의
- 세계보건기구(WHO)에 의해 주도되어 온 '건강도시' 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건강도시란 그 도시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을** 지속적으로 창조하고 개선하며, 삶의 모든 기능들이 잘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그 도시의 최상의 잠재성을 개발함에 있어, 사람들로 하여금 **상호 협력**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지역사회의 자원을 확대해 나가는 도시를 말한다."



- 2) WHO가 제시한 건강도시의 구성요소들은 다음과 같다.
- 1) 주거환경을 포함한, 양질의 깨끗하고 안전한 물리적 환경
- 2) 현재 안정적이며 앞으로 장기간에 걸쳐 지속가능한 생태계
- 3) 상호 협력이 잘 이루어지며 자원을 절약하는 지역사회
- 4) 생활과 건강과 안녕에 영향을 주는 결정에의, 높은 정도의 시민들 스스로의 참여와 통제 기능이 원활한 사회
- 5)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의 기본 요구 즉, 음식, 물, 주거, 수입, 안전, 직장 등의 충족



- 6) 모든 시민들이 건강과 관련된 자원, 경험, 서비스에 공평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함
- 7) 다채롭고, 활기 넘치며, 혁신적인 도시 경제
- 8) 역사적, 문화적, 생물학적 유산이 보존되며 다른 집단과 개인 간의 협력이 장려되는 사회
- 9) 건강도시의 제반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조직이 갖추어진 도시
- 10) 적절한 공중보건 및 치료서비스가 모든 시민에게 공평하게 보장되는 도시
- 11) 지역주민의 건강 수준이 높은 도시

3. 건강도시의 지표(indicators)들에 대한 분석

- 1) 건설교통부의 “2006년 제7회 지속가능한 도시대상: 시행방안, 평가항목, 평가지표”
 - 친환경
 - 주민참여
 - 도시관리
 - 정보화
 - 녹색교통
 - 문화

2) 1992년 WHO의 MCAP(a Multi-City Action Plan)에 의해 정리된 견해

- 건강
- 건강 서비스
- 물리적 환경
- 경제적 환경
- 사회적 환경
- 공공 서비스

3) 1999년 말레이시아의 말라카(Malacca)에서 열린 WHO 건강 도시 워크숍에서의 지표

- 인구통계와 역학 조사 (인구구성, 질병예방)
- 도시배경 (역사, 문화, 기후, 지형학)
- 물리적 환경 (환경의 질, 녹지공간)
- 생활환경 (음용수, 주거공간, 쓰레기 처리)
- 도시의 하부 구조 (도시계획, 운송, 정보통신)
- 조직과 서비스 (행정, 의료시설, 스포츠 시설)
- 경제 사회적 문제
- 입법과 규제들



4) 1997년 나카무라(Keiko Nakamura)가 정리한 지표들

- 인구통계학적 지표들
- 하부 구조의 지표들 (하수, 도로, 주거)
- 쾌적한 지표
- 교육 지표
- 노동 환경 지표
- 보건의료와 복지 서비스 지표



5) "건강도시 창원" 프로젝트가 제시한 지표들

- 노년기/고령화 (Ageing)
- 대기 (Air)
- 음주 (Alcohol drinking)
- 어린이 및 청소년 (Children and young people)
- 도시 건강 개발 계획 (City health development planning)
- 지역사회 참여 (Community participation)
- 마약 (Drugs)
- 환경 (Environmental health)






- 형평성 (Equity and health)
- 보건의료 계획과 정책 (Health care policy and planning)
- 건강영향평가 (Health impact assessment)
- 주택 (Housing)
- 정신보건 (Mental health)
- 비전염성 질환/만성병 (Noncommunicable diseases)
- 영양 (Nutrition)
- 운동 (Physical activity)
- 빈곤 (Poverty)




- 생식보건 (Sexual health)
- 흡연 (Smoking)
- 사회보호 (Social care)
- 사회적 건강결정요소 (Socioeconomic determinants of health)
- 지속가능한 발전 (Sustainable development)
- 교통 (Transport and health)
- 거버넌스 (Urban governance)
- 도시계획 (Urban planning)
- 폭력 (Violence)



6) 조무성 교수의 견해



- <마음건강에 관한 문제> 1. 가치관의 전도 2. 정신병 3. 알코올 중독 4. 자살
- <몸 건강에 관한 문제> 1. 전염성 질환 2. 비전염성 질환 3. 암
- <사회건강에 관한 문제> 1. 부정직 2. 불신 3. 갈등 4. 부패 5. 사고와 재난 6. 과소비 7. 퇴폐 향락
- <환경건강에 관한 문제> 1. 수질오염 2. 대기오염 3. 토양오염 4. 전자기파
- <기타 건강도시에 포괄되어지는 요소들> 1. 가정건강, 2. 일터건강, 3. 교회건강



7) 여러 안들의 비교와 종합

- (1) 마음건강: 영적 건강, 정신건강, 도덕적 건강
- (2) 육체건강: 인구 통계학적 자료, 건강한 삶의 스타일 및 역학조사, 건강서비스의 재정위(reorienting)
- (3) 주거환경: 건강주거, 환경건강, 공원과 스포츠 시설, 지리적 환경건강, 기본 도시 기획 및 인프라 구조

 양호회신학대학교

- (4) 생태건강: 기본적 자연환경 건강, 쓰레기 및 하수처리의 건강성, 친환경에 대한 노력, 교통 환경 건강
- (5) 사회건강: 가정환경 건강, 경제와 산업 환경 건강, 복지환경 건강, 노동환경 건강, 교육 및 역량강화, 문화환경 건강, 평화의 권리
- (6) 가버넌스 건강: 토대가 되는 기본행정의 건강성, 지역행정의 건강함, 주민참여도

 양호회신학대학교

4. 전인건강(wholistic health)과 건강도시

- 이 같은 WHO의 건강도시에 대한 정의는, 건강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와 연관되어 있다. 세계보건기구는 건강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건강은 육체적(physical), 정신적(mental), 사회적(social) 복리(well-being)의 온전한 상태로 단지 질병이 없거나 또는 허약(infirmity)한 상태에 있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1982년 인도의 뉴델리에서 열린 세계기독교의사회(World Christian Medical Society)에서는 "건강이란 신체적, 정신적, 영적, 그리고 사회적으로 정상인 상태" 라고 정의했다.

 양호회신학대학교

- 클라인벨의 중요한 업적 중에 하나는 **전인 건강(Well Being)** 위해, 타인과 세상을 향한 사회적 관계 및 자연과의 바른 관계를 강조한 것이다. 인간의 영적이며 정신적인 건강은 사회와 자연 속에서의 바른 활동과 연관되어 있다. 이와 같이 인간의 건강은 육적인 것만으로 이해될 수 없으며, 생물학적, 영적, 정신적, 사회적, 윤리적, 심리적, 생태적 관계에서 인간 유기체의 최적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임을 우리는 파악할 수 있다.

 **장로회신학대학교**

- 우리는 전인건강의 구성요소들을 몇 가지로 간추릴 수 있다. 전인 건강에는 육체적 돌봄에 집중하는 의학적(medical) 건강, 영적인(spiritual) 건강, 심리적인(psychological) 건강, 사회적인(social) 건강, 환경적인(environmental) 건강 등의 요소들이 포함되는 바, 이에 우리는 건강도시를 지지하는 구성요소들로서 육체적이며 물리적인 차원, 환경적이며 생태적인 차원, 심리적이며 정신적인 차원, 사회적이며 제도적인 차원, 영적이며 종교적인 차원들을 언급할 수 있게 된다.

 **장로회신학대학교**

- 성경은 이러한 다차원적(multidimensional) 관계의 온전함을 '살롬' 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표현한다. 살롬은 보통 평화라고 번역되지만, '건강함' 이나 '완전성' 이라는 말로도 번역이 가능하다. 윌터스트롬은 이 같은 살롬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우리는 살롬이 정의와 상호 연관되어 있음을 보게 될 것이다. ... 정의 없이 살롬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살롬은 정의 이상의 어떤 것이다. 살롬은 인간 존재가 하나님과 자아와 이웃 및 자연과의 평화로운 관계를 말한다." 이런 의미에서 건강도시 운동은 궁극적으로 기독교적 살롬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장로회신학대학교**

- 영어로 질병을 'disease'라고 한다. 평안(ease)이 없는 상태가 질병의 상태라는 것이다. 살롬이 무너진 상태가 건강하지 못한 모습이다. 하늘과 땅이 만나며, 영과 육이 조화되고, 인간과 하나님이 조화되며, 사람과 사람들이 그리고 사람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나라를 건설하는 곳에, 참 살롬과 주님이 주시는 건강함이 임할 것인 바, 건강도시 운동은 이런 총체적 목적을 향하여 전진하여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



5. [행복하고 건강하며 안전한 마을의 평가지표]

- 필자는 아래에서 행복한 마을을 평가하는 지표들을 정리해보았다. 100점 만점으로 하여 대충 아래의 지표들을 살피면 그 마을의 행복도가 어느 수준인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우리의 마을목회는 아래의 지표들을 올리는 사역이라 볼 수 있다. 마을의 행복도를 가장 빠르게 올릴 수 있는 사역들을 잘 생각하여 선택하는 것이 마을목회의 효율성을 높이는 일이 될 것이다. 아래의 배점들을 기준으로 5단계로 나누어 점수를 주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바, 그 기준을 정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 같이 생각된다.



번호	평가지표	배점	설명
1	자살률	10	현재 우리나라는 고령인구의 자살이 많은 편이다.
2	이혼율	6	이혼율은 가정의 행복도를 제는 중요한 지표이다. 이혼을 하면 많은 결혼 자녀들이 생긴다.
3	실업률	7	실업은 가정의 행복에 가장 큰 장애 중 하나이다.
4	출생률	4	아이들 마음 놓고 낳지 못하는 마음은 행복하지 못한 마을이다.



5	지역의 1인당 소득액	8	1인당 소득액은 그 마을의 경제활동을 재는 주요 지표이다.
6	교통사고 건수(사망자 수)	3	지역의 안전도에 있어 교통사고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7	전국에서의 초중고 졸업성취도 백분율	4	행복한 마을이 되려면 행복한 학교가 있어야 한다.
8	강력범죄 건수/ 인구 1000명당	4	살인, 강간, 유괴, 방화, 강도 등의 강력범죄를 말한다.

장로회신학대학교

9	자기주택 보유율	3	자기주택, 전세, 사급세 비율
10	지역의 행복지수(자신들이 생각하는), 초중고 학생들의 행복지수	4	행복지수에 대한 여러 기관들의 평가가 있다.
11	관청의 마을 만들기 예산 %/ 주민 위탁 실적	6	전세 제정에 대한 %

장로회신학대학교

12	종교인구(기독교인 %)	5	기독교인의 수가 몇 %인지 정확한 통계가 필요할 것이다. 예배에 참석하는 정도도 조사될 필요가 있다.
13	수질 및 대기 오염도	5	수돗물 오염도, 대기 오염도, 오존 지수, 미세먼지 오염도 등의 측정이 중요하다.
14	생활보조사 %	4	극빈층의 %
15	시민 1인이 차지하는 녹지 및 공원 면적	3	녹지 면적과 문화시설 면적이 시민들의 행복에 중요하다.

장로회신학대학교

16	가정폭력 신고 건수	4	가정폭력에 대한 강한 제재가 필요할 것이다.
17	술집 등의 퇴폐업소 수 / 인구 1,000명당	3	향락 업소가 많을수록 안 좋은 동네다.
18	관의 사회복지 지원 수준, 사회복지 체계	5	노령자와 처음 출생한 아이들에 대한 사회복지 수준은 특히 중요하다.
19	고독사 %	2	한국사회의 고독사 비율이 정증하는 것이 문제이다.

20	낙태율	2	혼전 낙태율이 관심의 대상이다.
21	적령기 결혼율	3	적령기를 25-35세 정도로 보면 될 것 같다.
22	지역 주민의 건강도(건강진단 자료 점검)	3	지역의 건강검진의 결과들로 파악할 수 있다.
23	정신 질환자 %	2	정신과에서 치료한 환자 수를 점검해보면 될 것이다.
	총점	100	

6. 건강도시 운동의 장점

- 1) 공공신학(public theology)으로서의 건강도시 운동
- 우리는 이 같은 건강도시 운동과 연계된 여러 교회의 작업들에 대해 언급할 수 있는데, 성시화(Holy City) 운동, 트랜스포메이션 운동, 도시선교(urban mission)와 도시목회, 하나님의 나라 구현을 통한 선교, 임파워먼트(역량강화)를 통한 선교, 기독교 사회복지의 이론들과도 연결된 고리를 찾을 수 있다.
- 독일의 공공신학자 중의 한 명인 몰트만(J. Moltmann)은, 공공신학(theologia publica)은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 역사의 공적 세계 속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관심과 희망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그것은 기독교의 정체성의 핵심을 이룬다고 말한다. 이와 같이 공공신학은 **사회의 공적 문제들에 대한 신학의 공적 상관성을 강조**한다.

- 공공신학은 교회만을 위한 신학이 아니며,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기독교의 신앙을 설명하며 그들을 설득하고 사회적 변혁을 위해 영향력을 갖는 신학이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공공신학은 기독교인이나 비기독교인이 공유하는 보편적인 실천적 도덕적 사유 (universal practical moral reasoning)와 자연법(natural law) 및 공유된 도덕법(moral law)에 호소하려 한다. 이런 각도에서 공공신학은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이 공유하는 바의 공동 도덕(common morality)을 강조한다. 공공신학은 단지 기독교 밖의 사람들에게 신학을 선포하는 데에 그치지 않으며, 그를 위한 이론적이며 지적인 논구를 하려 한다. 이에 공공신학은 다른 신앙이나 전통을 갖거나 다른 학문 분야의 사람들을 대화의 대상에서 배제하지 않으며, 그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지속적인 대화의 노력을 하려고 한다.

장로회신학대학교

2) 공공신학적 입장에서의 건강도시 운동의 장점

- 이 같은 세계보건기구가 주도적으로 벌인 건강도시 운동에 대한 교회적인 입장에서의 이해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여러 장점들을 제공하여 준다.
- (1) 교회의 건강도시 운동에의 참여는 이전의 교회 일각에서 있었던 사회에 대한 비판적인 운동의 대안으로서, 사회에 대한 긍정적 참여의 가능성을 열어준다.
- (2) 교회가 하는 사회봉사의 내용을 기독교의 구원과 인간의 전체적 복리라는 큰 틀에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제공한다.

장로회신학대학교

- (3) 교회의 사회에 대한 봉사의 내용을 도시의 건강이란 개념에 집중함으로써, 교회가 하는 사회봉사의 내용이 추상화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기독교 밖에 있는 사람들이 언급하는 바, 기독교의 사회봉사가 오늘의 사회에 적절하지 못하다는 비판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 (4) 이러한 건강도시 운동에의 참여는 교회가 비기독교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힘으로써, 선교의 장을 확대하는 기회가 갖게 될 것이다.

장로회신학대학교

- (5) 오늘에 만연해 있는 행복 개인주의에 대한 생각을 수정할 기회를, 이 운동이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나만의 복리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복리를 추구하는 바의 건강도시 운동은 우리로 하여금 함께 잘 살아가는 것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한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을 나만의 것으로 삼으려 해서는 안 되며, 모두를 위한 축복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 (6) 오늘의 우리 대학을 평가하는 대학종합평가와 같이, 이러한 건강도시 운동은 도시의 행복도와 도시의 행정의 질을 평가하는 지표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 도시의 행정과 오늘 우리의 정치가 진정 시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공함으로써, 우리는 현재의 우리의 통치와 행정이 잘 되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 이와 같은 지표들은 도시의 행정가들을 자극하여, 그들이 시민들을 위하여 구체적인 봉사를 하게 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 (7) 이 같은 건강도시 운동은 사회 및 정치권의 쓸 데 없는 이데올로기 논쟁 및 정치이념 논쟁을 불식시킬 것이다. 중요한 것은 그런 논쟁이 아니라, 어떤 정당이 구체적으로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다.



- (8) 교회의 주요한 사명은 복음을 전파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는 것이다. 물론 우리는 이 땅 위에 주님의 나라를 건설할 수는 없다. 우리의 노력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은 그 나라의 그림자 정도가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천국의 영광을 소망하는 자로서, 이 땅을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게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다. 세계적으로 수천의 도시에서 진행 중인 이 같은 건강도시 운동에의 참여는 교회봉사의 공공성(publicity)을 증진시킬 것임에 확실하다.

7. 건강도시운동과 마을공동체 만들기

- 필자는 여기까지에서 세계보건기구가 펼쳤던 건강도시운동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에 있어 이러한 건강도시운동은 작금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운동 곧 **마을목회 운동**과 그 궤를 같이 한다. 마을공동체 만들기 운동은 개인적 행복만을 추구하는 우리의 삶에서 마을 공동의 행복으로 우리의 눈길을 돌리게 한다. 나 개인만의 행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 모두의 행복이 중요함을 일깨우는 것이다. 교회에 나가 나만의 잘 됨만을 위해 기도하던 우리의 관습에서 벗어나 마을의 복리와 행복을 위해 주님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 위한 노력이 이 마을공동체 만들기 운동을 추동하는 힘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 우리는 인간의 행복과 구원의 문제를 너무 개인주의적으로 생각해 온 경향이 있다. 인간의 행복은 개인에 국한된 행복만으로 완결되지 않는데, 우리는 공동체와 분리된 개인의 행복만을 추구해왔던 것이다. 예를 들어 가족을 족행하는 아버지가 있는 가족들의 행복은 나 개인의 정신적 안정만으로 보장되지 않다. 아버지의 족행 상황에 가운데에서 나만의 행복만을 지키고자 하는 노력은 진정한 행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다. 이 같은 어려움에 있는 가족 구성원을 구해내려면, 먼저 아버지의 족력이 방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법률적이며 사회적인 많은 조처들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아버지의 족력을 근절시키는 것이 그 가족 구성원 모두의 행복을 위한 필요조건이라는 것이다.

- 여기서 우리 개인 행복의 외연인 공동체의 행복을 강화하기 위한 주요 목표는 무엇인지 묻게 된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 정의와 평화의 나라를 이루는 것, 모든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것 등 그것의 구체적인 목표들이 제시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여러 목표들도 구체목표들로서 가능하지만, 무엇보다 **건강한 생명공동체를 만든다는 목표**가 성경의 입장에서나 교회 밖의 사람들과의 공동적 차원에서 바람직한 목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상명회신학대학교

- 성경 중 특히 요한복음은 기독교의 구원을 영생이라는 개념으로 정리한다. 주 예수를 믿어 영생을 얻는 것이 기독교의 구원의 제일 목적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영생의 개념은 주님이 주신 '조에'로서의 생명을 중시하는 개념으로 우리는 그 개념을 공동체적인 입장에서 생명공동체 만드는 운동으로 승화시킬 수 있을 것 같다. 오늘날 강조되는 생명공동체 만들기 운동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는 마을을 생명이 숨 쉴 수 있는 생태적인 환경으로 만드는 것으로, 우리는 이 운동의 목표를 생태적 생명공동체 마을 만들기 운동으로 정리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나 개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마을 전체를 생명이 보호되는 생태적이며 건강한 마을로 만드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려는 것이다.

 상명회신학대학교

- 이 같은 생태적이며 건강하고 행복한 마을공동체 만들기 운동은 건강도시운동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우리는 그 마을공동체 만들기 운동을 건강도시 만들기 운동으로 시작하여도 무방할 것이라 생각된다. 물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은 건강한 도시 만들기 운동으로 마무리 되는 것은 아니며, 그보다 더 크고 심오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 그 시작에서 서로 조우하는 것임을 언급하고 싶다.

 상명회신학대학교

- 이 같은 건강도시운동은 선교적인 차원에서 **CHE(Community Health Evangelism, 지역사회 보건선교)**라는 개념으로 실천되어 온 바 있다. 이 지역사회 보건선교 운동을 가장 선두에서 진행하여 온 단체는 월드비전으로, 이 단체를 중심으로 많은 기독교 선교단체들이 세계의 마을들을 건강한 마을로 만들기 위한 선교적 노력을 해왔던 것이다. 이들의 입장은 이러한 가난한 국가의 사람들을 경제적이며 육체적으로 돕는 것과 주님의 영적인 복음이 서로 나뉘지 않는다는 것에서 출발한다. 그들을 사랑하여 그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려는 선교자들은 그들의 육체적인 어려움에 무관심할 수 없다는 견지이다.



- 이 같은 CHE 운동은 일종의 지역사회 봉사 프로그램을 가지고 가서 그 마을에 실천하는 운동이기보다는 피선교지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건강하지 못한 상황들을 스스로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자각하게 하고 그들이 그들 자신에게 필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게 하며 그들의 힘을 결집하여 그것을 타개해나가도록 하는 운동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러한 CHE의 선교 방법은 일종의 역량강화(empowerment)의 방법을 채용한다. 역량강화란 고기를 잡아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고기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자신들이 자신의 행복을 일구어나가는 주체가 되어서, 공동체의 행복을 키워나가는 일을 하게 만드는 것이다.



- 이러한 역량강화의 방법을 더 깊이 고찰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개발(community development) 이론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경영학의 조직이론(organization theory)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요청된다. 이런 이론들은 한국에서 아직 깊이 논의되지 않은 분야로서, 한 마을을 행복하고 건강하게 만들려는 운동을 실천하는 데에는 없어서는 안 될 기초적 연구일 것이라 생각한다.



- 무엇보다 이 운동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그 마을이 경제적으로 자조할 수 있는 마을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위한 방안으로 '사회적 기업' (social business)의 방식이나 '선교로서의 사업' (Business as Mission, BAM) 및 마이크로크레딧(Micro-credit) 이론들이 연구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그들에게 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들의 생계를 스스로 지탱할 수 있게 하는 역량강화의 방법으로서의 이 같은 실천들은 마을 공동체 만들기 운동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방안들이다. 오늘의 한국교회의 국내선교를 위해서도 이런 운동들에 대한 깊은 이해가 요구되는 바, 우리는 교회의 봉사가 구제의 차원과 정신적 위로의 차원을 넘어 사회구조적인 개선의 노력까지 파급되게 하여야 할 것이다.

 **장로회신학대학교**

- 우리가 살피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운동은 적은 규모의 농촌마을만을 위한 환경운동으로만 국한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우리는 이 운동들을 도시의 동네들을 위한 운동으로도 확대 실천해나가야 한다. 이러한 마을 만들기 운동의 도시에서의 실천을 위해서는 도시 선교(urban mission)의 방법들에 대한 전이해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연구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장로회신학대학교**

- 한 마을을 건강하게 만들어 주님이 기뻐하는 복음공동체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영적이며 정신적인 변화가 없이는 불가능한 것으로, 이를 위해 복음과 성령의 힘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된다. 기독교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운동은 일면 인간의 보이는 육체적 건강과 생명을 증진함과 동시에 인간의 정신적이며 영적인 건강을 되살리는 것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각 마을에 교회를 세워 사람들로 하여금 영적인 각성을 하게하며, 새 삶의 목표를 갖게 하는 것이 이 운동을 위한 주요한 자원이 된다.

 **장로회신학대학교**

- 건강도시운동은 오늘 우리 교회가 공공신학적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일의 예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기독교인뿐 아니라 교회 밖의 사람들도 공감할 수 있는 주제를 채택하여 서로 힘을 합해 아름다운 마을을 만들어 가다 보면, 서로가 가지고 있는 뜻을 이해하게 될 것이며, 이러한 소통을 통해 그들도 복음에 접목될 것이라 생각한다.

논 찬 문		기독교학문연구회	
발표논문 제목	'건강도시운동'에 대한 공공신학적 성찰	발표자	노 영 상
		논찬자 (소속)	김창모(광주기독병원, 호남신학대학교 객원교수)

발표논문에서 발표자의 장점으로 첫째는, 현대사회의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건강도시'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이론과 추상적인 접근에 그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도리어 통합적인 이론으로 '공공신학'을 제시하여 구체적인 건강도시운동을 위한 실천적인 방안들을 의료적, 사회적 환경문제들을 포함한 지표들을 제시한다. 구체적 지표들은 크게 마음건강(영적 건강, 정신건강, 도덕적 건강), 육체건강, 주거환경건강, 생태건강, 사회건강, 가버너스 건강 등으로 구분하여 전인건강을 추구하고 있다. 이로 인해서 마치 조선시대 유교 가운데 주류였던 성리학이 중기 이후에 예학으로 치우친 문제점을, 다산 정약용이 개신유학으로서 실학적 성격으로 극복하고자 했던 모습을 연상하게 한다. 즉 건강도시운동을 위한 이론과 실천의 구체적 종합을 모색하고 있다.

발표자의 장점으로 둘째는, 건강도시운동을 한국교회가 공공신학적 측면에서 보편윤리(Universal Etic)의 관점에서 불신자들과도 대화하며 사회적 목회의 목표로 만들어 가서 선교적 과제가 되는 입장으로 제시한 점이다. 보편윤리란 그리스도인들이나 일반 불신자를 포함하여 사랑, 정의(正義), 평화, 생명, 공동체 같은 보편적 윤리 가치를 추구하는 입장이다. 따라서 건강도시운동을 그러한 입장으로 이끌어 가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는 그리스도인 교유의 정체성도 함께 지켜가는 장점이 부각된다.

발표자의 장점으로 셋째는, 건강도시운동의 공공신학으로서의 사회윤리적 성격을 지적하며 시카고학과와 예일학과 등을 비교하면서 교회적 신학의 사회변혁의 방안으로서의 힘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또 스택하우스나 몰트만 등 여러 신학자들의 공공신학에 대한 견해들을 소개하고 더불어 기독교 영성의 차원으로 종합하여 소개하고 있다. 동시에 자칫 공공신학의 관점이 기독교 공동체의 구원론과 교회론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여 잘못된 입장으로 흐르지 않도록 경각심을 추구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므로 교회공동체의 관점에서 건강도시운동을 전개하는 입장을 예장 통합교단에서 벌이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운동 곧 마을목회 운동 같은 실제적인 사례로 개인적 행복을 넘어서 공동체의 행복을 추구하는 관점으로 승화시키고자 한다. 이로 인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추구해 갈 때 무엇보다도 요한복음의 영생을 중심으로 건강한 생명공동체를 만든다는 목표를 이루어 가는 노력으로 발전시켜 갈 수 있게 된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사회적 기업의 방식이나 선교로서의 사업 등을 제시하여 국내 및 해외선교의 방법론을 제시한다.